

석사학위논문

고려후기 왜구의 발생과 실체 검토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이 동 현

2010년 2월

고려후기 왜구의 발생과 실체 검토

지도교수 진 영 일

이 동 현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2월

이동현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의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0년 2월

Review of Origination and Reality of Japanese Pirates
in later Goryeo Dynasty.

Lee Dong-Hyun

(Supervised by Professor Jin, Young-II)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10. 2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Abstract

I. 머리말.....	1
II. 왜구 발생과 고려의 대응책.....	3
1. 왜구 발생과 규슈 정세 비교.....	3
2. 왜구에 대한 고려의 대응책.....	12
III. 왜구의 구성에 대한 검토.....	21
1. 가왜 활동의 재검토.....	21
2. 이순몽 상서에 대한 비판.....	25
3. 제주도인 왜구설 비판.....	30
IV. 왜구 활동과 실체.....	38
1. 왜구 활동을 통해 본 왜구의 실체.....	38
2. 고려의 왜구 인식 변화를 통해 본 왜구의 실체.....	42
3. 왜구 주체로서 대마도만호 승종경.....	47
V. 맺음말.....	51
참고문헌.....	53

표 목 차

<표1> 고려 후기 왜구침입기 고려와 일본 정세.....	3
<표2> 고려 후기 고려·일본 외교교섭 현황.....	13



Abstract

Review of Origination and Reality of Japanese Pirates in later Goryeo Dynasty.

In later Goryeo Dynasty, Japanese Pirates caused a turning point to the relation between Goryeo and Japan, and emerged as a problem to be settled either to Goryeo or to Muromachi Shogunate. So, they actively negotiated each other to solve it, which offered a chance to establish rel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So, the problem of Japanese Pirates is an essential issue in reviewing relation between Goryeo Dynasty and Japan.

First, Let's review the cause of Japanese Pirates and countermeasures of Goryeo Dynasty. Japanese scholars are inclined to seek cause of Japanese Pirates within Goryeo Dynasty. However, they should take attention to the situation of Kyushu that time as a fundamental cause, because origination and development of Japanese Pirates coincide with the development of situation of Kyushu that time. Another ground is the fact that Goryeo's countermeasures were concentrated against Japan, for example, negotiating with Muromachi Shogunate, and suppressing Tsushima and Ikishima, etc. So we can undoubtedly conclude that Japanese Pirates were consisted of Japanese people.

Nevertheless, Japan is in position to see that they are consisted of Goryeo people. They suggest Fake Japanese Pirates and appeal by Yi Sunmong in the reign of the King Sejong. However, it would be reasonable to interpret the Fake Japanese Pirates as uprising by the lowborn, rather than disturbance by Japanese Pirates. Another aspect is that the appeal of Yi Sunmong is

exaggerated and distorted in an intention to ask reinforcement of identification tag system. Furthermore, as Japanese Pirates mentioned in the appeal is the Fake Japanese Pirates, it is inadequate to use as a material to inquire into the nature of Japanese Pirates.

Some of them insist that the Pirates were the people of Jeju-do Island. Based on the 『Annals of the King Sejong』, they insisted that Jeju-do Island had similar status to that of Tsushima to Goryeo Dynasty. However, it is defeated by the record of the 『History of Goryeo』. They also insist that the people of Jeju-do Island is the Pirates based on the 『Annals of the King Sejong』. However, it is unreasonable, too, to explain the nature of Japanese Pirates of later period of Goryeo Dynasty based on the record that appeared some 1 century later.

It is obvious that the Pirates were the Japanese people. However, it is not probable that all Japanese people were the Pirates. Korea, as well as Japan, peg the people of Tsushima and Ikishima as the Japanese Pirates. They think that they became the Japanese Pirates, out of poverty. However, some of them could invade to Goryeo with full-scale armament and excellent competence to fight.

We can learn about them through the change of attitude of Goryeo toward them. Goryeo didn't distinguish Japanese people from Japanese Pirates until early period of the King U-wang. However, they became conversant with domestic situation of Japan after the middle period of the King U-wang when they began negotiation with Muromachi Shogunate, and learned that the Japanese Pirates were different entity from Muromachi Shogunate. Goryeo learned that the Pirates were conducting the activity of raiding, occupying Tsushima and Ikishima, opposing to Muromachi Shogunate. They were the Southern Court of Japan opposing to Muromachi Shogunate, or lords of Tsushima and Ikishima cooperating with the Southern Court of Japan.

The one which coincide with the condition of former statement was Sung

Jonggyeong(So Tsunechige), the Naval officer of Tsushima. Tsushima was a major base, as well as a leg, for Japanese Pirates. They didn't invaded Goryeo after the 17th year of the reign of the King Gongmin-wang when the relation with them was improved. It means that the King Gongmin-wang could control them. Sung Jonggyeong participated in the war supporting the Southern Court of Japan. However, they couldn't obtain sufficient resources due to poor productivity of Tsushima. So, they allowed to invade to Goryeo to get short resources. They were the Japanese Pirates. So, Sung Jonggyeong was the main subject of Japanese Pirates.

Japanese scholars insist that Japanese Pirates were consisted of Goryeo people. However, there is little evidence that Goryeo people participated in the Japanese Pirates. On the contrary, most materials show that Japanese Pirates were consisted of Japanese people. So,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Japanese Pirates were consisted of Japanese people. And, lords of Tsushima and Ikishima were the real entity of the Pirates, and, their was Sung Jonggyeong behind them.

I. 머리말

왜구는 고려·원 연합군의 일본원정 이후 단절되었던 고려·일본 관계가 재개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왜구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고려와 일본 관계는 크게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과 일본 관계의 단초가 마련되었다. 때문에 왜구는 고려·일본 관계를 물론이고 한국·일본 관계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그 발생과 실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러 연구자들 사이에 이견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기존 연구들은 왜구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나는 고려에서 원인을 찾는 것으로 아오야마 고표(青山公亮)와 김상기는 고려·원 연합군의 일본원정으로 생겨난 일본의 자부심과 고려에 대한 적개심, 고려의 교역 차단으로 발생한 대마도(對馬島), 일기도(壹崎島)의 생활고를 들고 있다.¹⁾ 다무라 요코(田村洋幸), 타나카 다케오(田中建夫)는 고려 후기 전제 문란과 고려 군제의 이완에서 찾는다.²⁾ 박용운 역시 고려 조정의 동요와 혼란에 따른 정치적·경제적 어려움과 국방력 약화를 원인으로 지목했다.³⁾ 그러나 이영, 김보한 등 한국 학자들은 주로 왜구 발생 원인이 일본의 남북조쟁란으로 지방에 대한 통제력 약화 등 일본 내부 사정에 의한 것이라 주장한다.⁴⁾

왜구 발생 원인에 대한 논란은 왜구의 실체에 대한 문제로 직결된다. 왜구 발생 원인을 고려에서 찾으려는 노력은 왜구 실체를 고려인과 연결시키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며, 특히 왜구를 긍정적인 방향에서 재평가를 하려는 최근의 연구에

- 1) 青山公亮, 「倭寇の生起に關する一二の考察」; 「恭愍王朝に於ける彼我の關係」, 『日麗交渉史の研究』, 明治大學文學部, 1955. 박용운, 『고려시대사』, 일지사, 2003, 624-625쪽, 재인용; 김상기, 『신편 고려시대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635쪽.
- 2) 田村洋幸, 『中世日朝貿易の研究』, 三和書房, 1967, 144쪽; 田中建夫, 『倭寇』-海の歴史-, 教育史歴史新書, 1982, 42쪽. 김보한, 『日本史에서 본 倭寇의 발생과 소멸 과정』, 『문화사학』 22, 한국문화사학회, 2004, 224쪽, 재인용.
- 3) 박용운, 『고려시대사』, 625쪽.
- 4) 김상기, 『신편 고려시대사』, 635쪽; 박용운, 『고려시대사』, 625쪽; 김보한, 『日本史에서 본 倭寇의 발생과 소멸 과정』, 『문화사학』 22, 한국문화사학회, 2004; 이영, 「고려 말 왜구의 허상과 실상」, 『대구사학』 91, 대구사학회, 2008.

서 그러한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왜구 실체에 대하여 타나카 다케오와 다카하시 기마아키(高橋公明)는 고려말 가왜 활동과 조선 세종대 이순몽의 상서를 근거로 고려인과 일본인의 연합이나 고려인이 주체가 된 집단이라 주장했으며, 이를 제주도인 왜구설까지 발전시켰다.⁵⁾ 하지만 이영은 자신의 연구들을 통해 왜구 발생 원인을 일본 내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배후가 규슈의 영주인 쇼니 후유스케(少貳冬資)라 주장하였다.⁶⁾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왜구 발생과 실체에 대한 문제를 동일선 상에서 이해하고 왜구에 관한 모든 논의에 선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왜구 발생과 실체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우선 일본과 규슈 정세와 왜구 침입을 비교하고 고려의 대응책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왜구 발생 원인이 근본적으로 일본에 있으며, 왜구가 일본인으로 구성된 집단임을 밝히겠다. 그리고 고려 후기 가왜 활동과 이순몽의 상서를 재검토하여 왜구가 고려인과 일본인이 연합이라거나 고려인이 주체였다는 일본 학자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아울러 제주도인 왜구설 역시 비판하겠다. 또한 왜구의 침입 양상과 고려의 인식 변화를 통해 왜구가 일본인으로 구성된 집단이며, 그 근거지는 규슈와 주변 도서 지역, 특히 대마도와 일기도라는 것을 밝힐 것이다. 더 나아가서 당시 대마도를 다스리던 승종경(崇宗慶)과 휘하 무사들이 왜구의 주체였음을 검증하겠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고려사 연구에 가장 기본이 되는 사서이자 왜구에 대한 가장 풍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를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기존 연구의 도움을 받음으로서 왜구 발생과 실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5) 田中建夫, 「倭寇와 東아시아通商圏」, 『日本の 社會史』 1, 岩波書店, 1987; 高橋公明, 「中世 東아시아海域에 있어서의 海民과 交流」, 『史學』 33, 1987. 이영, 「高麗末期 倭寇構成員에 관한 考察」, 『한일관계사연구』 5, 한일관계사학회, 1996, 8쪽, 재인용.

6) 이영, 「高麗末期 倭寇構成員에 관한 考察」, 『韓日關係史研究』 5, 한일관계사학회, 1996; 「전환기의 동아시아 사회와 왜구」, 『역사비평』 46, 역사비평사, 1999; 「일본인이 보는 왜구의 정체」, 『韓國史研究』 123, 한국사연구회, 2003; 「경인년 이후의 왜구와 마쓰라토(松浦黨)」, 『일본역사연구』 24, 일본사학회, 2006; 「고려말 왜구의 허상과 실상」, 『대구사학』 91, 대구사학회, 2008; 『잊혀진 전쟁 왜구』, 에피스테메, 2007.

II. 왜구 발생과 고려의 대응책

1. 왜구 발생과 규슈 정세 비교

고려 후기 왜구는 고종 10년에 처음 등장한 이후 공양왕 4년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약 170년 동안 총 318회, 544개소를 침입하였다. 특히 충정왕 2년 이후 왜구 활동이 총 309회에 이르러 고려 멸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때문에 왜구 연구에 있어서 발생원인은 무엇보다 먼저 규명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다무라 요코(田村洋幸), 타나카 다케오(田中建夫) 등을 중심으로 왜구 발생 원인이 고려 후기 전제 문란과 고려 군제의 이완에 있다고 주장한다.⁷⁾ 사전(私田)이 확대되고 대토지를 차지한 농장의 발달 등으로 전제가 문란해지면서 양인의 사민화가 진척되었고 그로인해 군적에 오른 이들에게 군역을 부과할 수 없었다. 병력을 모을 수 없게 된 고려군 전력이 약화되자 왜구가 고려를 침입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고려의 군사력 약화에서 왜구 발생 원인을 찾으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고려 군제 이완은 왜구 침입이 격화된 원인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왜구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있으며 그런 점에서 왜구 활동에 큰 변화가 생기는 시점과 일본 정세 변동이 같은 궤적을 그리는 것은 흥미롭다. 다음 표 1을 보자.

<표1> 고려 후기 왜구 침입기 고려와 일본 정세

재위년(년)	서기(년)	침입회수	주요사건
고종 8	1221	0	일본: 조큐의 난(承久の亂) 발생.
고종 10	1223	1	

7) 田村洋幸, 『中世日朝貿易の研究』, 三和書房, 1967, 144쪽; 田中建夫, 『倭寇-海の歴史-, 教育史歴史新書, 1982, 42쪽. 김보한, 『日本史에서 본 倭寇의 발생과 소멸 과정』, 『문화사학』 22, 한국문화사학회, 2004, 224쪽. 재인용.

고종 12	1225	1	
고종 13	1226	2	
고종 14	1227	2	고려: 급제 박인, 예병사로 일본 파견. 일본: 고려에 왜구 침략 사죄, 우호통상 요청.
원종 4	1263	1	고려: 흥저, 광왕부 등 일본 파견. 왜구 금압 요청.
원종 6	1265	1	
충숙왕 10	1323	1	
충숙왕 복위 5	1336	0	일본: 남북조쟁란기 시작.
충정왕 1	1349	0	규슈: 아시카가 타다후유(足利直冬) 규슈로 피신.
충정왕 2	1350	6	규슈: 아시카가 타다후유와 쇼니 요리히사(少貳頼尙) 대결
충정왕 3	1351	2	
공민왕 1	1352	12	고려: 조일신의 난. 규슈: 아시카가 타다후유 규슈 떠남. 쇼니 요리히사와 남조군 연합으로 잇시키 노리우지(一色範氏) 공격.
공민왕 2	1353	1	
공민왕 3	1354	2	
공민왕 4	1355	2	규슈: 잇시키 노리우지 교토(京都)로 귀환.
공민왕 5	1356	0	고려: 기철 등 부원세력 제거. 쌍성총관부 수복.
공민왕 6	1357	3	
공민왕 7	1358	10	일본: 아시카가 다카우지(足利尊氏) 사망. 아시카가 요시아키라(足利義詮) 장군직 승계.
공민왕 8	1359	6	고려: 제1차 홍건적침입. 규슈: 남조군과 쇼니 요리히사 사이 전투 발발.
공민왕 9	1360	5	
공민왕 10	1361	4	고려: 제2차 홍건적침입. 규슈: 남조군 다자이후(大宰府)를 점령.
공민왕 11	1362	2	고려: 홍건적 격파. 개경수복.
공민왕 12	1363	0	고려: 흥왕사(興王寺)의 난. 덕흥군(德興君) 요동주둔.
공민왕 13	1364	11	고려: 덕흥군의 원군(元軍) 격파.
공민왕 14	1365	3	
공민왕 15	1366	3	고려: 전라도 도순문사 김유, 제주도벌 실패. 김일, 일본파견. 왜구금압 요청.
공민왕 16	1367	1	
공민왕 17	1368	0	고려: 대마도만호 송종경 임조. 일본: 아시카가 요시아키라 사망.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満) 장군직 승계.
공민왕 18	1369	2	
공민왕 19	1370	2	
공민왕 20	1371	4	고려: 신돈 실각. 규슈: 원료준(源了浚) 규슈탄다이(九州探題)에 임명됨.
공민왕 21	1372	10	규슈: 원료준 다자이후를 점령.
공민왕 22	1373	7	
공민왕 23	1374	12	
우왕 1	1375	5	고려: 나홍유를 일본 파견. 규슈: 원료준 미즈시마(水島)에서 쇼니 후유스케(少貳冬資) 살해. 남조군에 대패.
우왕 2	1376	13	
우왕 3	1377	30	고려: 승려를 모아 전함 건조, 각도 산성 수축, 화통도감 설치. 안길상 일본 파견, 일본 답례사 신흥이 올, 정몽주 답례사로 일본 파견.
우왕 4	1378	24	고려: 신흥과 군사 60명 보내옴. 정몽주 귀국. 주맹인이 함께 옴. 이자용, 한국주 일본 파견.

우왕 5	1379	17	고려: 일본에서 승려 범인을 보내 조빙. 박거사가 군사 186명 입국. 윤사충, 보빙사로 일본 파견. 이차용 귀국. 원료준, 피로인 230여명과 선물을 보냄.
우왕 6	1380	16	고려: 방지용 귀국. 일본 탐제장군, 오랑병위 등 사신이 함께 옴. 규슈: 원료준, 미즈시마 점령.
우왕 7	1381	17	규슈: 원료준 부대 시로노조(城野城) 점령. 남조군 기쿠치(菊池) 포기.
우왕 8	1382	10	고려: 일본에서 피로인 150여명 송환. 화적, 가왜 활동.
우왕 9	1383	21	고려: 화적·재인 등 가왜 활동. 일본에서 피로인 112명 송환.
우왕 10	1384	13	고려: 일본에서 피로인 남녀 92명 송환.
우왕 11	1385	13	고려: 명(明)에서 왜구 근거지 토벌을 하려함과 안내자를 세울 것을 요청.
우왕 12	1386	0	고려: 일본 폐가대에서 피로인 150명 송환.
우왕 13	1387	1	고려: 명에서 왜구 토벌 중용. 규슈: 남조군 기쿠치 다케토모(菊池武朝), 규슈에서 철수.
우왕 14	1388	10	고려: 요동정벌. 위화도 회군. 일본 사신 묘파, 원료준이 토산물을 바치며 피로인 250명 송환, 대장경 청구.
공양왕 1	1389	3	고려: 박위, 대마도정벌.
공양왕 2	1390	3	
공양왕 3	1391	1	고려: 원료준, 사자 파견. 방물 바침. 피로인 남녀 68명 송환. 송문중 답례사로 파견. 일본 승려 증도본 등 40여인 방문. 토산물 바침. 원료준, 방물 바침. 일본: 남북조 양군 정진.
공양왕 4	1392	2	고려: 조선건국. 일본: 남북조 통합.

* 고려, 일본, 규슈로 구분하고, '국명(지역): 사건'으로 표시하였다. 관련 주요사건이 없는 경우 공백처리 하였다. 『고려사』와 이영, 『고려 말 왜구의 허상과 실상』, 『대구사학』 91, 대구사학회, 2008. 88-89쪽 참고

이를 보면 고종 8년에 일본에서 '조큐의 난(承久の亂)'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고토바상황(後鳥羽上皇)이 고종 8년 가마쿠라막부(鎌倉幕府) 타도를 목표로 거병하자 사이고쿠(西國)와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의 영주들은 고토바상황 편에서 싸웠다. 가마쿠라막부는 조큐의 난에서 승리하자 그들의 영지를 빼앗아 자신들을 지지했던 토우고쿠(東國)의 무사들에게 지급하였고 영지를 빼앗긴 세토나이카이의 영주들은 생존을 위해 해적 활동을 벌였다.⁸⁾ 고종 10년에 고려에 왜구 침입이 처음 등장하는 것을 그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조큐의 난의 결과 발생한 해적들이 활동 영역을 대마도 대안지역인 경상도 남부해안까지 확장한 것이 고종-원종대 왜구 침입이다. 이를 방증하듯이 고종 14년 박인을 일본에 보내 항의하자 그 일당을 사로잡아 참수하였⁹⁾ 고종 19년에는 「어성패식목(御成敗式目)」, 「추가법(追加法)」을 발표하여 수차례 해적 행위를 금지했다. 이후 원종 4년까지 왜구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왜구와 세토나이카이 해적이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한다.¹⁰⁾

8) 김보한, 『日本史에서 본 倭寇의 발생과 소멸 과정』, 226-227쪽.

9) 『고려사』 22, 고종 14년.

표 1을 살펴보면 충정왕 원년에 아시카가 타다후유(足利直冬)가 고노 모로나오(高師直)에 패하여 규슈로 피신하고 충정왕 2년 3월 아시카가 타다후유와 쇼니 요리히사(少貳頼尙)가 무력충돌을 일으킨다. 그런데 『고려사』에서 이해를 ‘이로부터 왜구가 시작되었다.’¹¹⁾라며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아시카가 타다후유가 규슈를 떠난 뒤 쇼니 요리히사와 남조군이 연합하여 잇시키 노리우지(一色範氏)를 공격한 공민왕 원년에 왜구 활동이 12회, 아시카가 다카우지(足利尊氏)가 사망하고 쇼니 요리히사와 남조군 사이 전쟁이 발발하는 공민왕 7년과 8년에 각각 10회, 6회로 다른 해보다 많은 침입이 이루어진 것은 일본 규슈 정세와 왜구 활동이 관련되어 있음을 방증한다.

더구나 원료준(源了浚)¹²⁾이 규슈탐다이(九州探題)로 부임한 이후 규슈 정세 변화와 왜구 활동 증감이 일치하고 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원료준이 규슈로 부임한 것은 공민왕 21년이며, 우왕 원년에는 규슈의 유력세력인 시마즈 우지히사(島津氏久), 오오토모 치카요(大友親世), 쇼니 후유스케(少貳冬資)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자이후(大宰府)를 점령하고 미즈시마(水島)까지 진출한다. 그리고 우왕 원년 8월에 원료준이 쇼니 후유스케를 살해하면서 시마즈 우지히사가 남조군으로 전향하고 치쿠고(築後) 일대에서 남조군이 봉기하면서 원료준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후 규슈 정국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대혼란에 빠지는데 그 시기가 우왕 2년부터 우왕 11년으로 고려 후기 왜구 침입의 54.7%가 이 시기에 집중될 만큼 왜구 침입이 극심했다. 규슈가 어느 때보다 혼란하던 시기와 왜구 침입이 극에 달하는 시기가 일치한다는 것은 규슈의 혼란이 왜구 침입을 부추겼음을 의미한다. 다음 사료를 보자.

(가) 우왕 2년 10월: 나흥유(羅興儒)가 일본에서 돌아왔는데 일본에서는 승려 양유(良柔)를 파견하여 보병하고 비단, 꽃병풍, 장검, 금용머리 장식 술잔 등을 바쳤다. 그 나라의 승려 주좌(周佐)가 편지에서 이르기를, “지금 우리의 서해도 일대와 규슈에 난신들이 활거하여 공납을 바치지 않은 것이 20여 년이나 되었다. 그런데 서쪽 바다에 있

10) 김보한, 「日本史에서 본 倭寇의 발생과 소멸 과정」, 229쪽; 「東아시아의 經濟 圈域에 있어서 약탈의 주역, 海賊과 倭寇 -10~13세기 日本의 해적과 倭寇를 중심으로-」, 157쪽.

11) 『고려사』 권37, 충정왕 2년 2월.

12) 원료준(源了浚)은 『고려사』에 구주절도사(九州節度使)로 등장하는 인물로 규슈탐다이 이마가와 료순(今川了浚)과 동일 인물이다. 본고에서는 『고려사』의 기록에 따라 원료준으로 표기한다. [필자주]

는 섬의 완고한 백성들(頑民)이 틈을 엿보아 귀국을 침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조정에서 장수를 보내어 토벌하는데 그 지방에 깊이 들어가서 날마다 서로 싸우고 있다. 이제 규슈만 평정하면 해구(海寇)를 금할 수 있음을 하늘에 맹세하고 약속한다.”라 하였다.¹³⁾

(나) 우왕 3년 8월: 일본국이 승려 신흥(信弘)을 보내 보빙하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귀국을 침범하는 좀 도적들은 우리나라에서 도망쳐 간 무리로서 우리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니 금지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라 하였다.¹⁴⁾

위 두 사료는 우왕 2년과 3년에 각각 일본에서 보내 온 첩장(牒狀) 내용으로 (가)를 보면 서해도와 규슈 일대에 난신이 활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난신은 막부군에 대적하는 세력이다. 당시는 규슈가 남조군에 의해 다스려진 지 20여년 된 시점이었으므로 (가)에서 이야기하는 난신은 남조군으로 볼 수 있고, 조정에서 장수를 보내 토벌하고 있다는 것은 무로마치막부에서 원료준을 규슈탄다이로 임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가)는 규슈지역을 남조군이 장악하고 있어서 무로마치막부의 영향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규슈를 제압하기 위해 원료준을 파견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고려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구절인 ‘규슈만 평정하면 해구를 금할 수 있음을 하늘에 맹세하고 약속한다.’라는 규슈의 남조군을 제압하면 왜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고려가 나홍유를 일본에 파견한 시점이 우왕 원년 2월이라는 것과 원료준이 남조군에 크게 패하는 것이 동년 8월이라는 점으로도 추정해볼 수 있다. 즉 우왕 원년인 1375년에 원료준은 남조군에게 결정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시점에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왜구 활동이 증가하였다. 그런데 일본은 대외관계에 대한 일차적 사무를 다자이후에 위임하고 있었으므로 고려에서 파견한 나홍유를 맞은 것은 원료준이었다. 따라서 남조군에 대한 승리를 눈앞에 둔 원료준은 곧 왜구를 금압(禁壓)하겠다고 약속하는 첩장을 승려 양유를 통해 전달한 것이다. 하지만 그해 8월에 원료준이 쇼니 후유스케를 살해하면서 내분이 발생하고 남조

13) 『고려사』 권133 열전46, 우왕 2년 10월: 羅興儒 還自日本 日本 遣僧良柔 來報聘 獻彩段 畫屏長劍鏤金龍頭酒器等物 其國僧周佐 寄書曰 惟我西海道一路 九州亂臣割據 不納貢賦且二十餘年矣 西邊海道頑民 觀釁出寇 非我所爲 是故 朝廷遣將征討 采入其地 兩陣交鋒 日以相戰 庶幾克復九州 則誓天指日 禁約海寇.

14) 『고려사』 133 우왕 3년 8월: 日本國 遣僧信弘 來報聘書云 草竊之賊 是逋逃輩 不遵我令 未易禁焉.

군에 크게 패하는 일이 벌어짐으로서 약속을 지키기 어려웠다.

고려는 약속과 달리 왜구 활동이 급증하자 우왕 3년에 판전객사사(判典客寺事) 안길상(安吉祥)을 파견한다. 그해 8월에 안길상과 함께 승려 신흥이 첩장을 가져 온다. 그 내용이 (나)로 여기서 ‘도망쳐간 무리’는 (가)에서 이야기하는 난신과 동일한 존재로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다. 그러므로 이를 바꿔 말하면 왜구 활동은 규슈에서 원료준과 대결하고 있는 남조군이 벌이는 것으로 자신들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를 통해서도 왜구가 규슈 정세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원료준에 가담했던 지방 영주세력들이 이탈하면서 세력이 크게 약화되던 시기에 어느 때보다 왜구 활동이 급증한 것이다. 그런데 원료준이 남조군과 대결에서 다시 우위를 점하는 우왕 5년부터 고려와 관계 개선을 위하여 피랍된 고려인들을 송환할 수 있었던 것은 남조군에 대한 우위를 차지하면서 지방 영주들에 대한 통제력이 회복된 때문이다.

다시 표 1을 보면 남조군이 다자이후를 점령한 것은 공민왕 10년이고 원료준이 규슈탄다이에 임명된 것은 공민왕 20년으로 11년 동안 왜구 침입은 연평균 2.9회이고 공민왕 12년, 17년에는 침입이 없었다. 비록 공민왕 13년에는 11회에 이르지만 덕흥군(德興君) 옹립을 시도한 원군(元軍)과 서북면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여 남부에서 전력 공백이 발생한 때문이다. 원료준과 남조군이 치열한 싸움을 벌이던 공민왕 21년부터 우왕 11년까지 연평균 14.9회 침입한 것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다. 남조군에 의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다스려지던 기간과 무력충돌로 혼란해진 기간의 이와 같은 왜구 활동 변화는 규슈 정세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때문에 (가)에서 일본은 규슈를 제압하면 왜구를 근절시킬 수 있다고 약속하고, (나)에서 원료준이 남조군을 상대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자 왜구를 근절시키기 어렵다고 해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왜구 활동 변화와 규슈 정세의 비교를 통하여 일본 학계의 주장이 잘못되었으며 고려 내부 사정은 결코 왜구 활동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없으며, 남북 조쟁란기라는 일본 내부 사정, 특히 규슈의 혼란한 정세가 왜구 활동의 근본 원인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고려 내부 사정과 왜구 활동의 관련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표 1을 보면 공민왕 13년에 11회 침입이 있었던 것과 달리 공민왕 12년과 14년에 각각 0회, 3회

침입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의 갑작스런 증가 원인을 다음 사료를 통해 알아보자.

(다) 공민왕 13년 봄 정월 병인: 최유(崔濡)가 원나라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덕흥군을 받들고 압록강을 건너 의주(義州)를 포위하였다. 도지휘사 안우경이 일곱 번 그와 싸워 물리치고 다시 나가서 싸웠는데 도병마사 홍선(洪瑄)이 포로로 되고 아군이 패배하였다. 아군은 퇴각하여 안주에 들어가서 수세를 취하고 최유는 전주(宣州)에 들어가서 거점으로 삼았다. 왕이 찬성사 최영을 도순위사로 임명하여 정병을 거느리고 급히 안주(安州)로 가서 모든 군사를 통제하게 하였으며 또 태조(이성계)에게는 동북면으로부터 정예 기병 1천 명을 인솔하고 가게 하였으며 도체찰사 이순과 병마사 우제와 박춘도 군사를 인솔하고 와서 모이었으므로 아군이 다시 떨쳤다. 나세(羅世)로 홍선(洪瑄)을 대신케 하였다.¹⁵⁾

(라) 공민왕 13년 9월 기사: 호군 장자온(張子溫)이 원나라로부터 돌아와서 황제가 왕을 복위(復位)시키고 최유(崔濡)를 수인차(檻)에 넣어 압송하라고 명령하였다고 말하였다.¹⁶⁾

(다), (라)를 통해 공민왕 13년에 최유가 덕흥군을 옹립하려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고려군이 최유가 이끌고 온 원군을 물리쳤지만 공민왕 13년 9월에 원 황제가 공민왕을 복위시킨 뒤에야 사건은 일단락된다. 즉 공민왕은 9월까지 원으로부터 폐위당한 상태였으며 고려군은 다시 있을지 모르는 침입에 대비하여 서북면에 전력을 집중시켜야 했다. 당연히 다른 지역에서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공민왕 13년에는 왜구 침입이 증가는 물론이고 여진의 동북면 침입도 확인된다.¹⁷⁾ 따라서 고려 내부 문제가 왜구 침입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사실은 다음 사료를 통해서 더욱 분명해 진다.

우왕 14년 4월 을사: 우왕이 봉주(鳳州)에 도착하였다. [...] 태조(이성계)가 말하기를, “지금 출정하라는 것은 네 가지의 불가함이 있습니다. 소국으로서 대국을 거역하니 첫째 불가함이요 여름에 군사를 내니 두 번째 불가함이요 전국의 역량을 기울여서 원

15) 『고려사』 권40 세가40, 공민왕 13년 정월 병인: 崔濡 以元兵一萬 奉德興君 渡鴨綠江 圍義州 都指揮使安遇慶 七戰却之 復出與戰 都兵馬使洪瑄 被擒 我軍敗績 走保安州 濡 入據宣州 王命 贊成事崔瑩 爲都巡慰使 將精兵 急趣安州 節度諸軍 又命我.

16) 『고려사』 권40 세가40, 공민왕 13년 9월 기사: 護軍張子溫 還自元 言 帝命王復位 檻送崔濡.

17) 『고려사』 권40 세가40, 공민왕 13년 정월.

정하면 왜적이 빈틈을 탈 것이니 세 번째 불가함이요 지금은 장마철로 활에 먹인 아교가 풀리고 대군이 전염병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네 번째 불가함입니다.”라고 하였다. 우왕도 자못 그럴 듯이 여겼다.¹⁸⁾

위 사료는 이성계가 요동원정에 반대하며 내세운 이른바 사불가론(四不可論)으로 요동원정 반대 이유 가운데 세 번째로 왜구를 거론하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정예병을 대규모로 동원할 경우 전력에 공백이 생기고 그 틈을 타서 왜구 활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공민왕 13년의 상황이 재현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당시는 고려군의 전력 강화, 원료준의 규슈에서 지배력 확대 등으로 왜구가 활동이 어려워지자 우왕 12년에 0회, 우왕 13년 1회로 위축되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왜구의 세력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으며 환경만 갖춰진다면 언제든지 대규모 침입을 할 수 있었다. 이성계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한 것으로 최영 역시 이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방비책을 마련하였다.

(마) 우왕 14년 4월 정미: 우왕이 평양으로 가서 각 도의 징병을 독촉하고 압록강에 배다리를 가설하면서 대호군 배구(裴矩)에게 명령하여 “이것을 감독하라” 하였다. 임견미, 염홍방 등의 가재를 배로 서경에 운반하여 군대의 상금으로 쓰려고 하였으며 또 전국의 승려들을 징발하여 군대에 편입하였고 경기도 병정은 떼어 내어 동강과 서강에 주둔시켜 왜적을 방비케 하였다.¹⁹⁾

(바) 우왕 14년 4월: 봉천선도원수(奉天船都元帥) 동지밀직 이광보(李光甫)에게 명령하여 개경(開京), 서강(西江)으로 돌아가서 주둔하여 왜적의 침입을 방비케 하였다.²⁰⁾

당시 요동원정군은 좌군을 서경,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 계림, 안동에서, 우군을 안주도, 동북면, 강원도 등 고려 전역에서 동원하여 인원이 50,464명이고 말이 21,682필에 이르는 대규모 원정이었다. 고려는 요동원정에 많은 병력을 동원함으

18) 『고려사』 권137, 우왕 14년 4월 을사: 禍至鳳州 … 太祖曰 今者出師有四不可 以小逆大一不可 夏月發兵 二不可 舉國遠征倭乘其虛三不可 時方暑雨弓弩膠解大軍疾疫四不可 禍頗然之.

19) 『고려사』 권137, 우왕 14년 4월 정미: 禍 次平壤 督徵諸道兵 作浮橋于鴨綠江 使大護軍裴矩督之 船運林康等家財于西京 欲充軍賞 又發中外僧徒爲兵 抄京畿兵 屯東西江 以備倭.

20) 『고려사』 권137, 우왕 14년 4월: 命奉天船都元帥同知密直李光甫 還屯開京西江 以備倭.

로서 발생하는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와 같이 전국의 승리를 징발하여 병력을 보충하고, 경기도 수비병을 동강과 서강에 주둔시켜 왜구의 개경 일대 침입에 대비하였다.

(바)에서는 다시 봉천선도원수 이광보를 개경으로 귀환시켜 왜구에 대비토록하고 있다. 이미 경기도 수비병을 동강과 서강에 주둔시켰음에도 이광보를 귀환시킨 것은 그만큼 왜구가 다시 발호할 가능성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왜구가 강화도는 물론이고 동강과 서강에 침입한 전례가 많았기 때문에 특히 개경의 수비를 강화했다. 그런 대비에도 불구하고 우왕 14년 곳곳에서 왜구가 활개를 친다.

(사) 우왕 14년 5월: 전라도 안렴사 유광(柳亮)이 왜선 80여 척이 와서 진포(鎭浦)에 정박하면서 부근 주와 군에 침입한다고 보고하였다.²¹⁾

(아) 우왕 14년 5월: 양광도 안렴사 전리(田理)가 급보하기를 왜적이 40여 군(郡)에 침입하였으며 수비병이 약하여 무인지경(無人之境)을 드나들듯 한다고 하였다.²²⁾

(자) 창왕 즉위년 8월: 왜적들이 낙안군(樂安郡)과 고흥현(高興縣), 풍안현(豐安縣)에 침입하여 인민들을 도륙하고 민가를 불살랐으며 또 진주(晉州)에 침입하여 목사(牧使) 이빈(李贇)이 전사하였다.²³⁾

(사)를 보면 왜선 80여척이 진포로 침입했는데 이전과 비교해도 규모에 큰 변화가 없다.²⁴⁾ (아)를 보면 양광도 40여군을 왜구가 횡행하고 있음에도 수비전력이 약해서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 (자)에서는 낙안군, 고흥현, 풍안현이 큰 피해

21) 『고려사』 권137, 우왕 14년 5월: 全羅道按廉使柳亮 報倭船八十餘艘 來泊鎭浦 寇旁近州郡.

22) 『고려사』 권137, 우왕 14년 5월: 楊廣道按廉田理 馳報倭寇四十餘郡 留兵單弱 如蹈無人之境.

23) 『고려사』 권137, 창왕 즉위년 8월: 倭寇樂安郡高興豐安等縣 屠燒民戶 又寇晉州 牧使李贇戰死.

24) 다음 표는 충정왕 2년 이후 왜선 50척 이상 침입 기록으로 우왕 14년의 침입이 규모면에서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주]

재위년(연-월)	서기(년)	침입 왜선	재위년(연-월)	서기(년)	침입 왜선
충정왕 2-4	1350	100여척	우왕 3-11	1377	130척
충정왕 2-5	1350	66척	우왕 6-5	1380	100여척
충정왕 3-8	1351	130척	우왕 6-8	1380	500척
공민왕 13-3	1364	200여	우왕 7-7	1381	50척
공민왕 23-4	1374	350척	우왕 14-5	1388	80여척
우왕 3-6	1377	200여척			

를 입었을 뿐 아니라 진주목사 이빈은 왜구와 교전 중 전사하였다. 왜구가 극성을 부리던 우왕 2-11년과 비교해도 세력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고려 내부 문제가 왜구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미 발생한 왜구에 미치는 영향일 뿐 일본 학자들이 주장하는 발생 원인과 별개의 문제이다. 오히려 표 1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왜구 발생은 고려보다는 일본 내부 정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당연히 왜구 발생 원인도 규슈 정세에서 찾아야 한다. 그럼에도 왜구 발생의 원인이 고려에 있다는 일본 학자들의 태도는 왜구를 민족과 국적을 초월한 존재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자신들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즉 왜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다민족·다국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려의 상황을 부각시키고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왜구 발생은 근본적으로 남북조쟁란기라는 일본 내부 문제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왜구는 일본인으로 성된 집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왜구에 대한 고려의 대응책

고려가 왜구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외교적으로 일본에 압력을 가해서 왜구를 금압하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군사력을 동원하여 침입하는 왜구를 격퇴하고 나아가 근거지를 공격함으로써 왜구를 근절시키는 것이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었지만 충정왕 2년부터 공민왕 20년까지 왜구 침입은 연평균 3.7회 정도로 국가 존망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원간섭기를 거치며 군사력이 크게 약화된 고려는 군사적 방법보다는 외교적 방법에 중점을 두고 왜구에 대응하였다. 하지만 공민왕 21년부터 침입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우왕 11년까지 연평균 14.9회 침입이 있었다. 그 기간을 우왕 2-11년으로 한정하면 연평균 17.4회로 증가하고, 고려후기 왜구 침입의 54.7%가 집중되며 지배체제를 크게

동요시키자 고려는 왜구를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였으며 군사력 증강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게 된다. 이처럼 왜구에 대한 고려의 대응책은 시기에 따라 변화하였는데, 공민왕대까지는 외교적 방법을 우선시 했으며 우왕대는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점차 군사적 방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갔다. 우선 다음 표를 통해 외교적 대응책에 대해서 살펴보자.

<표2> 고려 후기 고려·일본 외교교섭 현황.

계위년도(연-월)	고 려	일 본	비 고
고종 14	박인(朴寅)		
고종 14-5		서찰	
원종 즉위-7	한경운(韓景胤), 홍저(洪沂)		
원종 4-4	홍저, 곽왕부(郭王府)		
공민왕 15-11	김일(金逸)		
공민왕 17-1	김일	승려 범탕(梵滂), 범류(梵繆)	귀환
공민왕 17-7		일본사신	
공민왕 17-7		대마만호 사절	
공민왕 17-윤7	이하생(李夏生)		대마도
공민왕 17-11		대마도만호 송종경	
우왕 1	나홍유		
우왕 2-10	나홍유	승려 양유	귀환
우왕 3-6	안길상		
우왕 3-8		승려 신흥	
우왕 3-9	정몽주(鄭夢周)		
우왕 4-6		승려 신흥, 병력 69명	
우왕 4-7	정몽주	주맹인(周孟仁)	귀환
우왕 4-10	이지용(李子庸), 한국주(韓國柱)		
우왕 5-2		승려 법인(法印)	
우왕 5-5	한국주	박거사(朴居士), 병력 186명	귀환
우왕 5-윤5	윤사충(尹思忠)		
우왕 5-7	이지용	피랍 고려인 230명	귀환
우왕 6-11	방지용(房之用)	오랑병위(五郎兵衛) 등	귀환
우왕 8-2		피랍 고려인 150명	
우왕 9-9		피랍 고려인 112명	
우왕 10-8		피랍 고려인 92명	
우왕 12-7		피랍 고려인 150명	
창왕 즉위-7		묘파(妙葩), 피랍 고려인 250명	대장경 요구
공양왕 3-8		사신, 피랍 고려인 68명	
공양왕 3-10	송문중(宋文中)		
공양왕 3-10		승려 도본(道本) 등 40여명	
공양왕 3-11		원료준의 사신	

* 고종-원종대, 공민왕 15-17년, 우왕-공양왕대의 세 시기로 구분되는데 각 시기 사이 외교교섭이 있었다는 단서는 찾을 수 없다. 『고려사』 참조

표 2를 보면 외교교섭이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고종 14년부터 원종4년, 두 번째는 공민왕 15년부터 17년, 세 번째는 우왕 2년부터 공양왕 3년까지이다. 외교교섭에 대해서는 이 세 시기를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시기에 대해서는 다음 사료를 보자.

(가) 고종 14년: 이해에 급제 박인(朴寅)을 예빙사로 일본에 파견하였다. 이때에 왜적이 주, 현들을 침략하므로 국가에서 이것을 걱정하여 박인에게 공문을 주어 보내 대대로 우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침략하여서는 안 된다고 타일렀더니 일본에서 침략을 일삼던 왜적을 찾아내어 죽였다. 이리하여 그들의 침략 행위가 좀 잠잠하여졌다.²⁵⁾

(나) 원종 4년 4월: 대관서승(大官署丞) 홍저(洪沍), 첨사부녹사(詹事府錄事) 광왕부(郭王府) 등을 일본국에 보내 해적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통첩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 나라가 교통한 이래 매년 정상적인 헌납(進奉)은 한 번이고, 한 번에 배는 2척으로 결정하였으며 만일 그 밖의 배가 다른 일을 빙자하여 우리의 연해 지방 촌락, 동리들을 소란케 할 때에는 엄격히 처벌하며 금지하기로 약정하였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서 2월 22일 귀국에 배 한 척이 이유 없이 우리 국경 내의 웅신현(熊神縣) 지경 물도(勿島)에 침입하여 그 섬에 정박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공납물 수송선들에 실었던 화물 쌀 도합 120석과 명주 도합 43필을 약탈하여 갔으며 또 연도(椽島)에 들어 와서 주민들의 의복, 식량 등 생활 필수 물자들을 모조리 빼앗아 갔으니 이러한 사실들은 원래 약정하였던 호상 교통의 본의와 대단히 위반되는 것이다. 지금 홍저 등을 시켜 통첩을 가지고 가게 하니 공식통첩을 상세히 보는 동시에 사신들의 구두 전달을 잘 듣고 전기 약탈자들을 끝까지 추궁하여 찾아내어 모두 징벌 제어함으로써 두 나라 간의 화친의 도리를 공고하게 할 것을 바란다.”라고 하였다.²⁶⁾

(다) 원종 4년 8월 무신: 홍저, 광왕부 등이 일본으로부터 돌아 와서 왕에게 보고하기를, “해적을 끝까지 추궁해 보니 그것은 대마도에 있는 왜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25) 『고려사』 권22, 고종 14년: 是歲 遣及第朴寅 聘于日本 時 倭賊 侵掠州縣 國家患之 遣寅齎牒 諭以歷世和好 不宜來侵 日本 推檢賊倭 誅之 侵掠稍息.

26) 『고려사』 권25, 원종 4년 4월: 遣大官署丞洪沍 詹事府錄事郭王府等 如日本國 請禁賊 牒曰 自兩國交通以來 歲常進奉 一度船 不過二艘 設有他船 枉憑他事 濫擾我沿海村里 嚴加徵禁 以爲定約 越今年二月 二十二日 貴國船一艘 無故來入我境內熊神縣界勿島 略其島所泊 我國貢船所載 多般穀米并一百二十石 紬布并四十三匹 將去 又入椽島 居民衣食資生之具 盡奪而去 於元定交通之意 甚大乖反 今遣洪沍等 齎牒以送 詳公牒 并聽口陳 窮推上項奪攘人等 盡皆徵沮 以固兩國和親之義.

에게서 쌀 20석, 귀밀 30석, 소가죽 70장을 징벌해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하였다.²⁷⁾

(가)는 같은 해 4월과 5월에 왜구가 침입하자 급제 박인을 파견하여 왜구 침입에 대해 항의하고 근절을 요구한 것으로 일본에서는 고려를 침입한 왜구를 찾아내어 죽이고 5월에 고려에 사과하는 첩장을 보내왔다.²⁸⁾ 이 시기 사절의 교환은 사건의 전개상 5월 경술일의 왜구 침입 직후 고려에서 박인을 파견하자 일본이 사절을 파견하여 답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와 (다)는 원종 4년 2월 계유일 왜구 침입에 대한 사절 파견에 관한 내용이다. (나)에서 고려는 왜구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양국관계의 단절 가능성까지 비추며 압력을 가했고, (다)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범인을 찾아내어 배상품을 징벌해 보내왔다. 비록 왜구가 약탈해 간 것에 비하여 부족한 양이었지만 일본이 성의 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섬으로서 일단락됐다.

원종 6년, 충숙왕 10년 침입에 대해서는 사절을 파견한 내용은 찾을 수 없는데 원종 6년의 경우 일본으로 사절을 파견하는 것은 원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사절 파견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충숙왕 역시 독자적으로 일본에 사절을 파견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다음으로 공민왕대 15년 이전에는 사절을 파견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즉위초부터 원의 간섭을 배제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왜구를 심각한 위협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는 찾기 어렵다. 그런데 공민왕 15년에 갑자기 사절을 파견했다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 다음 사료를 통해 알아보자.

공민왕 15년 10월: 전라도 도순문사(都巡問使) 김유(金庾)가 병사를 모집하여 배 100척에 갈라 싣고 가서 제주를 토벌하려 했으나 패전하였다.²⁹⁾

위에서 전라도 도순문사 김유는 제주를 토벌하려다 실패하였는데 동원된 병력

27) 『고려사』 권25, 원종 4년 8월 무신: 洪汧郭王府等 自日本還 奏曰 窮推海賊 乃對馬島倭也 徵米二十石 馬麥三十石 牛皮七十領而來.

28) 『고려사』 22, 고종 14년 5월.

29) 『고려사』 권41, 공민왕 15년 10월: 全羅道都巡問使金庾 募兵得百艘 討濟州 敗績.

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하지만 공민왕 23년 탐라 토벌에 병력 25,605명, 전선 314척을 동원한 것을³⁰⁾ 기준으로 삼는다면 8,000명 내외였을 것이다.³¹⁾ 우왕 14년 요동원정에 전국에서 동원된 인원이 50,000여명이었음을 감안하면 김유가 동원한 병력은 당시 전라도에서 동원 가능한 최대치라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토벌이 실패하면서 전라도 수비에 공백이 발생하였고 왜구가 대규모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11월에 김일을 일본에 파견한 것이다. 공민왕 17년에는 왜구 근거지인 대마도를 직접 회유함으로써 약 2년이란 기간 동안 왜구 침입이 단 1회에 그치는 성과를 얻었다. 이는 당시 규슈가 남조군에 의해 안정적으로 다스려지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공민왕 21년 이후는 원료준과 남조군 사이 전쟁으로 규슈가 크게 혼란한 상황이었다. 고려는 우왕 원년에 나홍유 파견을 시작으로 일본과 다시 교섭에 나섰다. 하지만 고려와 교섭한 것은 무로마치막부와 원료준으로 남조군에 협력하는 왜구 금압은 기대할 수 없었다. 외교적 방법으로 왜구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고려는 무력을 통해 직접 해결에 나서게 된다.

고려가 외교적 방법으로 왜구 문제를 해결하여 했던 것은 첫째는 공민왕 20년까지 북방정세에 비해 왜구는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둘째는 원간섭기 동안 약화된 전력으로 북방정세와 왜구 모두에 적절히 대응한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교적 방법은 일본의 내부 혼란으로 성과를 얻을 수 없었고 군사력으로 직접 왜구를 근절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이에 맞춰 군사전략을 지방군을 중심으로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전력 강화와 토벌이라는 적극적 자세로 전환해갔다. 하지만 왜구의 전력은 만만치 않았다. 다음 사료를 보자.

(라) 공민왕 21년 10월 신사: 왜선 27척이 양천(陽川)에 들어와서 3일 동안 머물렀다. 여러 장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출전하였으나 아군은 모두 성중애마였으므로 수전에 익숙하지 않아서 대패하였다. 적은 원수기를 빼앗아 가지고 북을 울리며 강화(江華)에 이르러 읍인에게 주고 갔다.³²⁾

30) 『고려사』 44, 공민왕 23년 7월 무자.

31) 동원된 선박이 약 1/3 수준임으로 병력 역시 1/3인 8,000명 내외로 봐야한다. [필자주]

32) 『고려사』 권43, 공민왕 21년 10월 신사: 倭船二十七艘 入陽川 留三日 諸將領兵出戰 我軍皆成衆愛馬 未

(마) 공민왕 23년 4월 임자: 왜선 350척이 경상도 합포에 침입하였는데 군영과 병선을 불타고 살해당한 병사가 5,000여 명에 이르렀다. 조림(趙琳)을 파견하여 도순문사 김횡(金鉉)을 배게 하고 그 팔다리를 뜯어 여러 도에 들렸다.³³⁾

(바) 우왕 2년 7월: 왜적이 부여(扶餘)를 침공하고 공주에까지 침입하였다. 목사 김사혁(金斯革)이 정현(鼎峴)에서 싸워 패하였으므로 적은 드디어 공주를 함락시켰다. 양광도 원수 박인계(朴仁桂)가 응원전에 나서지 않은 공주의 속현인 회덕현(懷德縣) 감무(監務) 서천부(徐天富)를 배었다. 또 왜적이 석성(石城)을 침공하고 연산현(連山縣) 개태사(開泰寺)로 가는 것을 박인계가 맞받아 싸우다가 말 등에서 떨어져 피살되니 적은 개태사를 도륙하였다. 박인계는 평소에 민심을 얻었으므로 당시에 어진 장수라고 불렸다.³⁴⁾

(라)에서 고려군은 양광도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기 위하여 출동하였지만 수전에 능숙한 왜구와 싸움에서 대패하였을 뿐 아니라 원수기(元帥旗)까지 빼앗겼다. 전근대 사회의 전투에서 원수기를 빼앗는 행위는 승리를 의미함은 물론이고 상대의 사기를 꺾는 행위이다. 왜구가 북을 울리며 강화에 이르러 빼앗은 원수기를 들려준 것은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함과 함께 승자의 아량을 보여주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고려군 입장에서 매우 치욕적인 사건이었다.

(마)는 합포가 왜구의 대규모 기습 공격을 받고 궤멸적인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합포는 이전부터 고려의 주요한 군사기지였으며 고려·원 연합군의 일본원정에서 전초기지 역할을 하였던 곳이고 이후에도 꾸준히 병력을 주둔시키며 일본의 침입에 대비할 만큼 중요한 곳이었다. 그런데 공민왕 23년 4월 임자일에 왜선 350척이 합포를 침입하여 여러 시설과 전선을 불태우고 고려군 5,000여명을 살해하였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공민왕은 당시 합포를 담당했던 도순문사 김횡을 배고 사지를 찢어서 전국에 돌려 보임으로서 경계로 삼았다.

(바)에서 왜구는 부여, 공주를 함락시키고 양광도 일대를 횡행하였는데 양광

習水戰 故大敗 賊奪元帥旗鼓 至江華 遺邑人而去.

33) 『고려사』 권44, 공민왕 23년 4월 임자: 倭船三百五十艘 寇慶尙道合浦 燒軍營兵船 士卒死者五千餘人 遣趙琳 誅都巡問使金鉉 支解以徇諸道.

34) 『고려사』 권133, 우왕 2년 7월: 倭寇 扶餘至公州 牧使金斯革 戰于鼎峴 敗績 賊 遂陷公州 楊廣道元帥朴仁桂 以屬縣懷德監務徐天富 不赴救 斬之 賊 又寇石城 趣連山縣開泰寺 仁桂迎戰 墮馬被殺 賊 屠開泰寺 仁桂素得民心 時號賢將.

도 원수 박인계는 목사 김사혁을 지원하러 가지 않은 회덕현 감무 서천부를 참수했다. 이후 석성을 함락하고 연산현으로 이동하던 왜구를 격퇴하려 출정했으나 고려군은 패하고 박인계는 전사하였다.

이상의 사료를 보면 왜구는 고려군에 결코 뒤지지 않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수전에서는 고려군을 압도하였다. 왜구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군 전력 증강이 필요했다. 다음 사료를 보자.

(사) 우왕 3년 3월: 각 도(道)의 중들을 징모하여 전함을 건조하는데 경산(京山)에서 3백 명 양광도에서 천 명, 교주(交州), 서해, 평양 등 각 도에서 5백 명씩 징모하였다. 영을 내린 다음 만약 기피하는 중들이 있으면 군법으로 처벌한다고 하였다.³⁵⁾

(아) 우왕 3년 10월: 처음으로 화통도감(火筒都監)을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판사 최무선(崔茂宣)의 건의에 의한 것이다. 최무선이 원나라 화약 제조 기술자(焰炮匠) 이원(李元)과 한 동리에 살면서 대우를 잘해 준 다음 그에게 은근히 화약 제조 기술을 물어보고 자기 집 하인 몇 명에게 이를 전습시켜 시험해 본 다음 마침내 나라에 건의하여 화통도감을 설치케 한 것이다.³⁶⁾

(사)에서 우왕은 각 도의 승려들을 모아 전함을 건조하도록 했다. 이는 (라)와 같이 고려군이 수전에 익숙하지 못해 왜구에 패하거나 접근 조차할 수 없는 등 수군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전선 건조를 기피하는 승려는 군법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통해 고려가 수군전력 강화를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아)에서는 최무선의 노력으로 화통도감을 설치하면서 화약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화약무기는 이미 송과 금이 무기화했으나 고려는 제작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화약제조법은 극비사항이었고 고려의 전력 증강을 원하지 않았던 원과 명은 고려에 이를 전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때에 이르러 고려도 자체적으로 화약과 화약무기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고려는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으며³⁷⁾ 요해처에 산성을

35) 『고려사』 권133, 우왕 3년 3월: 募徵諸道僧徒 作戰艦 京山三百人 楊廣道一千人 交州西海平壤道 各五百人 遂下令僧徒 如有苟避者 以軍法 論.

36) 『고려사』 권133, 우왕 3년 10월: 始置火筒都監 從判事崔茂宣之言也 茂宣 與元焰炮匠李元 同里閭 善遇之 竊問其術 令家僮數人 習而試之 遂建白置.

수축하였다.³⁸⁾ 지속적인 전력 강화 노력의 결과는 우왕 6년 진포대첩에서 나타난다. 우왕 6년 8월 왜선 500척이 진포로 침입하자 나세, 심덕부, 최무선 등은 전선 100척에 화포를 설치하고 출전하여 왜선을 모두 불태워버렸다.³⁹⁾ 왜구를 상대로 벌인 수전 가운데 가장 큰 승리였다. 이에 자신감이 생긴 고려군은 왜구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다음 사료를 보자.

우왕 13년 8월: 정지(鄭地)가 글을 올려 동쪽을 치기를 자청하여 말하기를, “왜국은 온 나라가 도적이 아니고, 그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킨 백성들이 대마와 일기(一岐) 두 섬을 나누어 점령하였는데, 합포(合浦)와 가깝기 때문에 무시로 들어와 도둑질하는 것이니, 만일 죄를 성토하고 크게 군사를 일으켜 그 소굴을 전복시킨다면, 변방의 근심이 영구히 없어질 것입니다. 또 지금의 수군은 신사년 동정할 때 배에 익숙하지 못한 몽고병이나 한병(漢兵)과는 비교가 안 되오니, 순풍을 만나서 가면, 두 섬을 한꺼번에 섬멸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⁴⁰⁾

명이 왜구를 토벌할 것을 종용하자⁴¹⁾ 정지는 이를 기회로 대마도와 일기도를 토벌함으로서 왜구를 근절시키자는 적극적인 군사전략을 제안하였다. 당시 그의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공양왕 원년에 박위의 대마도 원정으로 실천에 옮겨진다.

공양왕 원년 2월: 경상도 원수 박위(朴葦)가 병선 100척을 거느리고 대마도를 쳐서 왜적의 배 300척과 막사를 불살라 거의 없애 버렸다. 원수 김종연(金宗衍)·최칠석(崔七夕)·박자안(朴子安) 등이 잇달아 이르러 사로잡혀 갔던 백성 1백여 명을 찾아 돌아왔다.⁴²⁾

우왕 12년부터 위축되었던 왜구 활동은 우왕 14년 요동원정을 계기로 다시 활기

37) 『고려사』 권81, 지 35, 병 1, 병제, 공민왕 10년 10월; 『고려사』 권133, 우왕 3년 2월.

38) 『고려사』 권133, 우왕 3년 2월.

39) 『고려사절요』 권31, 우왕 6년 8월: 羅世沈德符崔茂宣等 至鎮浦 始用茂宣所製火砲 焚其船 煙焰漲天 賊燒死殆盡 赴海死者亦衆.

40) 『고려사절요』 권32, 우왕 13년 8월: 鄭地上書 自請東征曰 倭非學國爲盜 其國叛民 分據對馬一岐兩島 隣於合浦 入寇無時 若聲罪大舉 覆其巢穴則 邊患永除矣 且今水軍 非辛巳東征蒙漢兵 不習舟楫之比也 順風而往則 二島一舉可滅.

41) 『고려사』 권136, 우왕 13년 5월.

42) 『고려사절요』 권34, 공양왕 원년 2월: 慶尙道元帥朴葦 以兵船一百艘 擊對馬島 燒倭船三百艘廬舍殆盡 元帥金宗衍 崔七夕 朴子安等 繼至 搜被虜民百餘以還.

를 띄웠고 고려는 왜구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공양왕 원년에 박위로 하여금 대마도를 공격토록 하였다. 박위는 병선 100척으로 대마도를 공격하여 그 근거지를 파괴하였고, 이를 계기로 왜구 침입은 연 2.2회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고려의 수군 전력 강화가 왜구를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살펴보면 고려의 대응책은 처음에는 일본에서 왜구를 근절시키도록 외교 교섭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고 왜구 침입은 더욱 심해졌다. 때문에 고려는 군사력을 동원하여 직접 왜구를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고려의 대응책이 모두 일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일본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고려인이 왜구 구성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거나 주체였다면 대응책은 일본이 아닌 고려 내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고려의 왜구 금압 요구나 대마도 정벌에 일본이 크게 반발했어야 한다. 하지만 일본은 고려의 요구에 반발하거나 항의하기 보다는 왜구 문제 해결에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며 적극 협조했다. 이는 당시에 왜구를 고려가 아닌 일본과 관련이 있는 문제로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왜구 발생 원인이 일본에 있으며 왜구를 일본인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타나카 다케오 등 일본 학자들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들이 그런 주장은 문화 교류라는 입장에서 왜구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였다고 생각되며 주장에 사료를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다음 장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Ⅲ. 왜구의 구성에 대한 검토

1. 가왜 활동의 재검토

일본 학계에서는 왜구를 다민족·다국적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보면서 문화교류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왜구가 일본인으로 구성된 집단이 아니며 고려인이 왜구의 상당수를 차지했다든지 주체세력이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타나카 다케오(田中健夫)는 “14세기 후반의 고려왕조 말기, 조선반도를 진동시킨 대규모의 왜구집단의 주체가, 실은 대마도 등의 일본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려의 제주도인 또는 양수척·재인 등의 천민집단이었다.”⁴³⁾라고 하며 왜구는 고려인이 주체 내지 고려인과 일본인의 연합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이영은 왜구 구성원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⁴⁴⁾ 또한 김보한은 왜구의 발생원인과 활동의 전개 과정을 일본 내부 정황과 비교하며 추적함으로써 왜구가 일본인으로 구성된 집단이란 많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⁴⁵⁾ 이렇듯 왜구의 인적구성에 대한 한국과 일본 학자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양측의 주장을 비교해보면 일본 학자들의 주장이 근거가 빈약함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고려 후기 가왜(假倭)와 조선 세종대 관중추원사(判中樞院事) 이순몽(李順蒙)의 상서(上書)인데 이를 좀 더 살펴보면 그들 주장의 근거로서는 빈약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가왜에 대해서 살펴보자.

(가) 우왕 8년 4월: 화척(禾尺)이 무리를 이루어 거짓으로 왜구(倭寇)가 되어서 영해군(寧海郡)에 침입하여 관청과 민호(民戶)를 불사르니 관밀직(判密直) 임성미(林成味)와 동지밀직(同知密直) 안소(安沼), 밀직부사(密直副使) 황보림(皇甫琳) 전밀직부사(前密直副使) 강서(姜筮) 등을 보내어 이를 추격하여 사로잡게 하니 임성미(林成味) 등이 잡혀갔던

43) 이영, 「高麗末期 倭寇構成員에 관한 考察」, 『韓日關係史研究』5, 한일관계사학회, 1996, 8쪽, 재인용.

44) 이영, 앞의 논문, 20-30쪽.

45) 김보한, 「日本史에서 본 倭寇의 발생과 소멸 과정」, 『文化史學』22, 한국문화사학회, 2004.

남녀(男女) 50여 명과 말 200여 필(匹)을 바쳤다. 화척(禾尺)은 양수척(楊水尺)이었다.⁴⁶⁾

(나) 우왕 8년 4월: 서해도안렴사(西海道按廉使) 이무(李茂)가 사로잡은 화척(禾尺) 30여 명과 말 100필(匹)을 바쳤다. 각 도(道)의 안렴(按廉)과 수령(守令)이 각각 그 사로잡은 것을 바치거늘 순군(巡軍)에 내려 그 죄를 추궁하여 그 주동자만을 목베고 부인과 어린아이와 마필(馬匹)을 몰수하고 그 외 나머지는 모두 석방하였는데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가 각 도(道)의 안렴(按廉)에게 공문을 내려, “여러 주(州)에 분산하여 배치하고 평민(平民)과 같이 일을 시키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이를 목베어 죽이라.”하였다.⁴⁷⁾

(다) 우왕 9년 6월: 교주강릉도(道) 화척(禾尺), 재인(才人) 등이 왜적으로 가장하고 평창(平昌), 원주(原州), 순흥(順興), 횡천(橫川) 등지를 약탈하였다. 원수 김입견(金立堅)과 체찰사 최공철(崔公哲)이 50여 명을 잡아 죽이고 그들의 처자를 각 고을에 나누어 주었다.⁴⁸⁾

위 사료들은 『고려사』에 나타난 가왜 기록이다. 이를 바탕으로 타나카 다케오는 가왜야 말로 고려인이 왜구 활동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 주장하며 ‘처자(妻子) 등의 가족(家族)이 보이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⁴⁹⁾ 그런데 처자가 함께 있다는 것이 어떻게 화척, 재인이 왜구 활동과 연결되는 것인지 명확한 근거는 찾을 수 없는데 아마도 왜구는 해민(海民)이라는 전제 아래 그러한 주장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그의 주장은 왜구는 해민이라는 주장에 사료를 끼워맞춘 것에 불과하며 왜구가 사실은 민족과 국적을 뛰어넘는다는 일본측 주장을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처자가 함께 있었다는 것은 가왜가 왜구와 관련이 없다는 근거로 봐야 한다. 만약 타나카 다케오가 주장하듯이 가족이 동행한다는 점이 화척과 재인이 왜구와 연합했다는 근거가 되려면 이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어야 한다. 그런데 3회에 불과한 가왜 기록에 나타나는 이러한 사실이 318회에 이르는 왜구 침입 기록에 그와 유사한 기록조차 나타나지 않는 것은 가왜가 왜

46) 『고려사』 134, 우왕 8년 4월: 禾尺群聚 詐爲倭賊 侵寧海郡 焚公廩民戶 遣判密直林成味同知密直安沼密直副使皇甫琳前密直副使姜筮等 追捕之 成味等 獻所獲男女五十餘人 馬二百餘匹 禾尺 卽楊水尺

47) 『고려사』 134, 우왕 8년 4월: 西海道按廉使李茂 獻所獲禾尺三十餘人 馬百匹 諸道按廉守令 各獻所獲 下巡軍鞠之 斬其首謀者 沒入妻孥 馬匹 餘皆釋之 都評議使司 牒諸道按廉 分置諸州比平民差役 有不從令者斬之

48) 『고려사』 135, 우왕 9년 6월: 交州江陵道 禾尺才人等 詐爲倭賊 寇掠平昌原州榮州順興橫川等處 元帥金立堅 體察使崔公哲 捕斬五十餘人 分配妻子于州郡

49) 이영, 「高麗末期 倭寇構成員에 관한 考察」, 23쪽.

구와 무관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봐야한다.

또한 사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왜구와 더욱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가)와 (다)에서 “왜구를 가장하여”라는 부분이 있는데 왜구가 아닌데 왜구 인척 했다는 것이다. 이를 왜구 활동으로 연결할 수도 있지만 당시 왜구 침입이 극심했다는 사실로 미뤄보면 자신들의 약탈과 방화 행위를 감추기 위하여 왜구를 가장했다고 볼 수 있다. 바꿔 말하면 화척과 재인은 자신의 행위를 당시 극심하게 침입하던 왜구에게 덮어씌움으로서 처벌을 회피하려한 것이다.

다음으로 (나), (다)를 보면 진압 후 처리 방식이 왜구를 대하는 방식과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반란 주모자만을 죽이고 주모자의 처자들을 노비로 편입하고 말들을 관가에 몰수하였으며 기타의 화척들은 모두 석방하였다.”, (다)에서는 “원수 김입견(金立堅)과 체찰사 최공철(崔公哲)이 50여 명을 잡아 죽이고 그들의 처자를 각 고을에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반란 주모자 혹은 동참한 본인은 사형에 처했지만 나머지 인물과 처자는 석방하거나 노비로 삼고 있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왜구를 진압한 뒤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포로로 잡은 왜구를 노비로 삼는 경우는 있지만 주모자만 처형하고 가담한 인물들을 석방하는 것은 위 사료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다음을 보면 민란의 사후 처리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의종 22년 11월 정축: 탐라안무사(耽羅安撫使) 조동희(趙冬曦)가 왕을 뵈러 왔다. 탐라는 길이 멀고 교통이 불편하여 외래 침략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서 토지가 비옥하여 나라의 경비가 이곳에서 나왔다. 이에 앞서 이곳에는 공납과 조세가 변잡하지 않아 백성들이 자기 생업에 안착하고 있었는데 근자에 관리가 법을 지키지 않자 적의 괴수 양수(良守) 등이 반역을 획책하여 수령을 축출하였다. 왕이 조동희에게 신임장을 주어 적들을 타이르게 하였더니 그들이 자진 항복하였다. 양수 등 주모자 2명과 그의 도당 5명은 사형에 처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모두 곡식과 비단을 주어 무마하였다.⁵⁰⁾

위 사료에서 양수 등은 탐라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나 탐라안무사 조동희의 회

50) 『고려사』 권18, 의종 22년 11월 정축: 耽羅安撫使趙冬曦 入覲 耽羅險遠 攻戰所不及 壤地膏腴 經費所出 先是 貢賦不煩 民樂其業 近者 官吏不法 賊首良守等 謀叛 遂守宰 王命冬曦 持節宣諭 賊等自降 斬良守等二人 及其黨五人 餘皆賜穀帛 以撫之.

유로 항복하였다. 반란에 대한 처리는 양수를 비롯한 7명을 사형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고 이외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나)에서 주모자를 처형하고 그 처자를 노비로 삼았지만 나머지는 비록 이들은 각 지방에 분산하여 천역에 종사시켰지만 석방하였다고 되어있어 위 사료와 상당 부분 유사하다. 즉 고려가 가왜를 반란 사건과 유사하게 처리하는 것을 통해 민란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민란은 무엇보다 삶이 안정되지 못하고 생존에 위협을 느낄 때 일어나는데 화척과 재인이 가왜 활동을 벌인 이유를 다음 사료를 통해 알아보자.

(라) 우왕 8년 윤2월: 보리가 흉년이었다.⁵¹⁾

(마) 우왕 9년 3월: 가뭄이 들어 술을 금했다.⁵²⁾

(바) 우왕 9년 4월: 가뭄이 심하여 참형, 교형 이하는 용서하였다.⁵³⁾

(라)를 보면 우왕 8년 윤2월에 보리가 흉년이 들었는데 보리는 가을 수확 전까지 중요한 식량으로 봄에 수확을 해야 가을 추수까지 식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데 보리가 흉년이 들었으니 식량 사정이 매우 악화되었을 것이다. (마)와 (바)에서 우왕 9년 3, 4월에 가뭄이 심하다는 것을 통해서 보리가 흉작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는 이미 우왕 2년부터 극심해진 왜구 침입으로 재정 궁핍에 시달렸고 민간의 상황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구나 우왕 8-9년은 왜구가 총 31회 침입하였고 보리가 흉작이었으니 식량 사정이 극히 어려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화척과 재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계층이 아니었기 때문에 식량 부족이 생존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했을 것이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민란을 일으켜 식량을 약탈하고 방화를 했으며 자신들의 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왜구로 가장하였다. 즉 가왜 활동은 비록 왜구를 가장하기는 했지만 왜구와는 무관하게 화척과 재인이 생존을 위해 일으킨 일종의 민란이다.

물론 우왕 8년과 9년은 총 31회에 73개소에 왜구 침입이 발생했다는 사실로 가왜 활동이 왜구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왜구 활동이 극심한 우왕 2년부터 11년 사이에 단 3차례, 그것도 우왕 8년과 9년에 한정되

51) 『고려사』 권134, 우왕 8년 윤2월: 無麥苗.

52) 『고려사』 권135, 우왕 9년 3월: 旱禁酒.

53) 『고려사』 권135, 우왕 9년 4월: 旱有二罪以下.

어 있는 기록만으로 가왜 활동을 왜구에 고려인이 다수 참여했다는 근거로 삼는 것은 너무 큰 비약이다. 만약 타나카 다케오의 주장처럼 화척과 재인이 왜구와 연계되어 있었다면 더 많은 기록이 더 넓은 시기에 나타났어야 한다. 이 점에서도 가왜 활동이 그런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고려 조정이 가왜와 왜구가 다른 존재임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영이 주장하듯이 『고려사』 찬자는 가왜와 왜구를 확실히 구분하고 있었다고 봐야한다.⁵⁴⁾ 만약 가왜가 왜구와 깊은 관련이 있다면 굳이 가왜와 왜구를 구분해서 기록할 필요가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가왜 활동은 왜구와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한다. 화척과 재인이 난을 일으켰던 것은 왜구 활동과 흉작으로 인한 식량 부족으로 생존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며 왜구를 가장한 것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왜구에게 전가하려던 행동이다. 그렇기에 고려 조정은 가왜를 진압한 뒤에 주모자를 처형하고 그 처자는 노비로 삼았지만 나머지는 석방하였다. 따라서 가왜 활동은 왜구와 연결시키기 보다는 생존문제에 직면한 화척과 재인이 일으킨 민란의 일종으로 왜구 침입 결과 가운데 하나로 이해해야 한다.

2. 이순몽 상서에 대한 비판

앞 절에서 타나카 다케오의 왜구가 고려인이 주체 내지 일본인과 연합이었다는 주장의 근거로서 가왜를 검토해 봤다. 그의 그러한 주장의 또 다른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조선 세종대에 판중추원사 이순몽의 상서로 타나카 다케오는 이순몽이 판중추원사라는 고관이라는 점에서 그의 상서에 신빙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 고려 후기 왜구의 대다수가 고려인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이영은 세 가지 점을 들어 비판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이순몽의 상서는 유민의 방지책으로서 호패법 재시행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왜구에 관하여 들은 이야기를 들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이순몽이 이야기하는 ‘왜복을 입고 당을 이루

54) 이영, 「高麗末期 倭寇構成員에 관한 考察」, 8쪽.

어 난을 일으킨’ 주체가 ‘지금의 신백정’을 가리킨다고 생각되는 점, 세 번째는 이순몽의 상서에 회답이 없고 『세종실록』 편자의 그에 대한 비판과 관중추원사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동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점 등을 들었다.⁵⁵⁾ 이영의 주장은 공감 가는 부분이 있다. 우선 이순몽의 상서 내용을 살펴보자.

세종 28년 10월 임술: 관중추원사(判中樞院事) 이순몽(李順蒙)이 상서하기를, “신이 삼가 보옵건대, 나라의 성교가 먼 곳까지 퍼져서 변경이 근심이 없으며, 인민이 번식하고 호구가 많은데도 군액이 증가되지 않는 것은, 그 백성이 안정된 뜻이 없어서 부역을 도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도 공천과 사천이 다른 도로 도망해 옮겨가서 스스로 양반이라 속이고는 문벌이 있는 집에 혼인하여 자식을 낳은 뒤에 잡혀와서 도로 천인이 된 사람까지 있게 되니, 그것이 상도에 어긋남이 매우 많습니다. 신이 듣기로 전조에 왜구가 흥행하여 백성이 살기가 어려웠는데 그 가운데 왜인은 1-2명에 불과하고 본국의 백성들이 거짓으로 왜복을 입고 당을 만들어 난리를 일으킨 것이니 이 또한 경계되는 일입니다. 지금 신백정이 평민들과 더불어 섞여 살면서 서로 당을 만들어 도적이 되어, 소와 말을 도살하는 이익으로써 귀에 짓고 눈에 익어서 보통의 일로 여기고 있으며, 혹은 험극으로 인하여 남의 집에 고의로 불을 지르기도 하니, 장차 방지하기 어려운 근심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그 폐단을 구제하는 요령은 호패보다 긴절한 것이 없습니다. 옛날 태종 때에 호패지법을 시험해 시행한 지 수년 만에 유리하는 사람이 적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민간에 번거롭고 소란하게 한다고 비평하면서 이를 폐지시켰으나, 이 폐단은 적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도적과 유망하는 무리들이 날로 성하여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었으나, 신은 원하옵건대 다시 호패지법을 시행하여 놓고 있는 무리를 금하고 도적의 근원을 그치게 한다면, 양민과 천민이 저절로 구별되어 군액이 날로 넉넉해지고, 옥송이 그치게 되어 백성의 생산과 사망이 저절로 명백해질 것입니다.” 하니, 회보하지 아니하였다. 이때에 공천, 사천과 부역을 도피한 양민들이 저곳과 이곳에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한정이 없었으므로, 순몽은 추출한 사람인데도 또한 그 폐단을 분개하여 이 소를 올렸던 것이다.⁵⁶⁾

55) 이영, 「高麗末期 倭寇構成員에 관한 考察」, 44쪽.

56) 『세종실록』 권114, 세종 28년 10월 임술: 判中樞院事李順蒙上書曰 臣伏觀國家聲教遠被 邊境無虞 生齒之繁 戶口之夥 而軍額不加者 以其民無定志而逃避差役者多也. 其中公私賤口逃移他道 自冒兩班 婚姻有蔭之家 至有生子之後 見獲還賤者 其爲反常甚多 臣聞前朝之季 倭寇興行 民不聊生 然其間倭人不過一二 而本國之民 假著倭服 成黨作亂 是亦鑑也. 今新白丁 與平民間居 相與作黨 爲盜宰殺牛馬之利 耳濡目染 以爲常事 或因嫌隙 故燒人家 將恐有難防之患. 救弊之要 莫切於號牌. 昔在太宗朝 號牌之法 試行數年 而流移鮮少 或議煩擾民間而廢之. 此弊小矣 當時盜賊流亡之徒日盛 不可勝紀. 臣願復行號牌之法 禁遊手之輩 弭盜賊之源 則良賤自別 而軍額日敷 獄訟弭 而民之生產物故 自明矣. 不報. 時公私賤口及逃役良人彼此流移者 不知紀極. 順蒙羸人 亦

위 사료에서 이순몽이 왜구에 대한 발언은 ‘신이 듣기로 전조에 왜구가 흥행하여 백성이 살기가 어려웠는데 그 가운데 왜인은 1-2명에 불과하고 본국의 백성들이 거짓으로 왜복을 입고 당을 만들어 난리를 일으킨 것이니 이 또한 경계되는 일입니다.’라는 부분이다. 이것이 타나카 다케오 등 일본 학자들이 고려인이 왜구의 주체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상서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이순몽의 상서는 호패법의 재시행을 건의하고 있으며 왜구에 대한 부분은 호패법 재시행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예로 들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왜구 발언 뒤에 이어지는 신백정이 앞선 왜구 활동의 주체라고 보는 것 역시 문제가 없다. 문맥상으로 보면 과거 왜구 활동을 벌였던 존재가 신백정이었으며 그들이 또 어떤 분란을 일으킬지 모르니 호패법을 시행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영은 자신의 논문에서 위 사료에서 이야기하는 왜구를 가왜로 보고 있다.⁵⁷⁾ 다만 그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부터 위 사료에서 이야기하는 왜구의 존재에 대하여 검토해보자. 위 사료에 따르면 왜구의 80-90%가 고려인으로 왜구 활동 자체가 민란의 일종이 된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왜구 발생은 일본정세와 관련이 깊다. 만약 이순몽이 이야기하듯이 왜구 중 왜인이 1-2명에 불과하다면 왜구 활동과 일본정세의 관계는 우연에 불과한 것이다. 고려후기 동안 왜구 활동이 우연히 일본 정세와 일치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또한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구 침입을 항의하는 고려의 행동에 일본이 크게 반발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일본은 오히려 피랍된 고려인을 가능한 송환하고⁵⁸⁾ 병력을 파견해 왜구 격퇴에 협조하는 등 고려의 요구에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인다.⁵⁹⁾ 이순몽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고려 내부 문제인 왜구에 대한 일본의 그러한 대응은 설명할 수 없으며 따라서 사실로 볼 수 없다.

憤其弊 乃上此疏.

57) 이영, 「高麗末期 倭寇構成員에 관한 考察」, 45쪽.

58) 『고려사』 40, 공민왕 12년 3월 기유; 『고려사』 134, 우왕 8년 2월; 『고려사』 135, 우왕 9년, 9월; 『고려사』 135, 우왕 10년, 8월; 『고려사』 136, 우왕 12년, 7월; 『고려사』 137, 창왕 즉위년, 7월; 『고려사』 46, 공양왕 3년, 8월.

59) 『고려사』 133, 우왕 4년 6월; 『고려사』 134, 우왕 5년 5월.

오히려 ‘거짓으로 왜복을 입고 당을 만들어 난리를 일으킨 것’이란 점에서 연상되는 것은 가왜 활동이다. 우왕 8년 4월과 9년 6월의 가왜에 대한 부분을 보면 ‘화척이 무리를 이루어 거짓으로 왜구가 되어서’, ‘교주강릉도 화척, 재인 등이 왜적으로 가장하고’라는 내용이 있다. 이순몽이 상서에 이야기한 왜구의 모습과 일치한다. 이순몽이 왜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바로 뒤에 신백정, 즉 양수척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은 문맥상 가왜의 주체가 양수척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이순몽의 상서에 나오는 왜구는 우왕 8-9년에 보이는 가왜를 지칭한다.

위 사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순몽은 상서를 통해 호패법 재시행을 주장하고 있으며 왜구에 관한 이야기는 유이민 방지책으로서 호패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순몽이 호패법 재시행을 건의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고 세종 20년에도 상서를 올렸다.⁶⁰⁾ 그런데 첫 번째 상서에서는 왜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만약 고려후기 호구제 문란으로 고려인이 왜구의 주체였다면 호패법 시행을 건의하는데 이보다 좋은 근거는 없을 텐데 세종 20년의 상서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확실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상서에서도 이순몽 스스로 들은 이야기임을 밝히고 있을 뿐 출처를 분명히 하고 있지 않다. 결국 이순몽은 호패법 재시행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 고려후기 있었던 가왜를 왜구 활동 전체가 그러했던 것처럼 왜곡시킨 것이다. 타나카 다케오 등은 이순몽의 이야기가 자신들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고려후기 왜구에 대해서는 다음 사료를 통해 일본인이 주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우왕 2년 10월: 나흥유(羅興儒)가 일본에서 돌아왔는데 일본에서는 승려 양유(良柔)를 파견하여 보병하고 비단, 꽃병풍, 장검, 금용머리 장식 술잔 등을 바쳤다. 그 나라의 승려 주좌(周佐)가 편지에서 이르기를, “지금 우리의 서해도 일대와 규슈에 난신들이 활거하여 공납을 바치지 않은 것이 20여 년이나 되었다. 그런데 서쪽 바다에 있는 섬의 완고한 백성들(頑民)이 틈을 엿보아 귀국을 침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조정에서 장수를 보내어 토벌하는데 그 지방에 깊이 들어가서 날마다 서로 싸우고 있다. 이제 규슈만 평정하면 해구(海寇)를 금할 수 있음을 하늘에 맹

60) 『세종실록』 권81, 세종 20년 5월 경술.

세하고 약속한다.”라 하였다.⁶¹⁾

(나) 우왕 3년 8월: 일본국이 승려 신흥(信弘)을 보내 보빙하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귀국을 침범하는 좀 도적들은 우리나라에서 도망쳐 간 무리로서 우리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니 금지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라 하였다.⁶²⁾

위 사료는 고려가 왜구 침입을 항의하고 금압을 요구한데 대한 일본의 반응으로 왜구에 대해서 일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가)에서 일본은 왜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규슈에서는 ‘난신’들이 할거한지 20여 년이나 되었고 그 혼란을 틈타 섬에 사는 ‘완고한 백성들’이 고려를 침입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서 난신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보자. 규슈에서 막부에서 임명한 규슈탄다이 잇시키 노리우지가 교토로 귀환한 것이 공민왕 4년으로 이 시점에 막부는 규슈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 이후 규슈탄다이로 원료준을 임명하며 규슈 탈환에 나선 것이 공민왕 21년이다. 17년간 규슈는 막부의 세력권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리고 (가)의 첩장이 고려에 보내진 것이 우왕 2년이다. 따라서 20여 년간 규슈에 할거한 난신은 남조군으로 봐야 한다. (가)에서 설명하는 상황은 규슈에서 원료준과 남조군이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그 혼란을 틈타 일부 백성들이 고려를 침입한다는 이야기이다. 즉 왜구는 일본 규슈의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백성들이다.

(나)를 보면 왜구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도망쳐 간 무리로서 우리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왜구에 대한 또 다른 단서를 확인할 수 있다. 승려 신흥은 원료준이 보내온 사절이었으니 ‘우리’는 막부군을 의미한다. 규슈에서 막부군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존재는 (가)에서 이야기하는 ‘완고한 백성들’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런데 (나)에서는 막부군으로부터 도망친 무리라는 단서를 덧붙이고 있다. 당시 규슈는 (가)를 통해서도 확인했듯 원료준과 남조군이 싸움을 벌이고 있었으니 명령에 따르지 않고 달아나는 존재는 남조군으로 볼 수 있다.

(가), (나)를 통해 알 수는 있는 왜구의 실체는 막부의 지배력을 벗어난 규슈

61) 『고려사』 133, 우왕 2년 10월: 羅興儒 還自日本 日本 遣僧良柔 來報聘 獻彩段 畫屏長劔鏤金龍頭酒器等物 其國僧周佐 寄書曰 惟我西海道一路 九州亂臣割據 不納貢賦且二十餘年矣 西邊海道頑民 觀釁出寇 非我所爲 是故 朝廷遣將征討 采入其地 兩陣交鋒 日以相戰 庶幾克復九州 則誓天指日 禁約海寇.

62) 『고려사』 133, 우왕 3년 8월: 日本國 遣僧信弘 來報聘書云 草竊之賊 是逋逃輩 不遵我令 未易禁焉.

도서 지방 백성들과 남조군이다. 왜구는 대부분이 양수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순몽의 이야기는 가왜를 왜곡하여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타나카 다케오는 사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순몽의 상서를 근거로 삼고 있으며 왜구 주체가 고려인이라는 주장은 사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자신의 주장에 사료를 끼워 맞춘 것에 지나지 않는다.

3. 제주도인 왜구설 비판

제주도인 왜구설은 타나카 다케오와 다카하시 기마아키(高橋公明)에 의해 주장되었다. 그들은 제주도가 지닌 이질성과 반독립성을 강조하며 고려 후기 목호(牧胡)들의 반란을 예로 들어 고려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하였다.⁶³⁾ 과연 그들의 주장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타나카 다케오와 다카하시 기마아키가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는 두 가지 사료를 통해 알아보려 한다. 우선 다음 사료를 보자.

대마도라는 섬은 경상도의 계림(鷄林)에 예속했으니, 본디 우리나라 땅이란 것이 문적에 실려 있어, 분명히 상고할 수가 있다. 다만 그 땅이 심히 작고, 또 바다 가운데 있어서, 왕래함이 막혀 백성이 살지 않는지라, 이리므로 왜인으로서 그 나라에서 쫓겨나서 갈 곳이 없는 자들이 다 와서, 함께 모여 살아 굴혈을 삼은 것이며, 때로는 도적질로 나서서 평민을 위협하고 노략질하여, 전곡(錢穀)을 약탈하고, 마음대로 고아와 과부, 사람들의 처자를 학살하며, 사람이 사는 집을 불사르니, 흉악무도함이 여러 해가 되었다.⁶⁴⁾

위 사료는 조선 세종 원년에 대마도를 정벌한 이후 대마도에 보낸 문서 중 일부로 이에 따르면 대마도가 원래 경상도 계림, 즉 경주에 속한 지역이었는데 백

63) 이영, 「高麗末期의 倭寇構成員에 관한 고찰」, 31쪽.

64) 『세종실록』 세종 원년 7월 17일: 對馬爲島 隸於慶尙道之雞林 本是我國之地 載在文籍 昭然可考 第以其地甚小 又在海中 阻於往來 民不居焉 於是 倭奴之黠於其國而無所歸者 咸來投集 以爲窟穴 或時竊發 劫掠平民 攘奪錢穀 因肆賊殺孤寡人妻子 焚蕩人室廬 窮凶極惡 積有年紀.

성이 살지 않으니 왜인들이 들어와 거주하면서 왜구의 근거지가 되었다고 한다. 타나카 다케오는 이를 근거로 조선의 지배계급이 영토의식 면에서 제주도와 대마도를 같이 인식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⁶⁵⁾ 하지만 위 사료는 이영이 지적하듯이 고려와 대마도의 진봉관계를 조선 세종대에 속령으로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⁶⁶⁾ 타나카 다케오의 말처럼 제주도가 반독립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고려에 있어서 제주도의 위치는 대마도와 분명히 달랐다. 그러한 사실은 다음 사료를 통해 알 수 있다.

(가) 고조기(高兆基)의 초명은 당유(唐愈)로 탐라(耽羅) 사람이다. 그의 아버지 고유(高維)는 우복야(右僕射)를 지냈다.⁶⁷⁾

(나) 충렬왕 3년에 원나라가 강점하여 이곳을 목마장(牧馬場)으로 만들었다. 20년에 왕이 원나라에 가서 탐라를 돌려 줄 것을 요청하였더니 원나라 대신 완택(完澤) 등이 황제에게 말하여 승인을 받고 탐라를 도로 우리나라에 돌려주었다. 이듬해 울미에 제주(濟州)로 고쳤고 비로소 판비서성사(判秘書省事) 최서(崔瑞)를 목사(牧使)로 임명하였다. 26년에 원나라 황후가 궁중용 마필을 이곳에서 놓아 먹였고 31년에 도로 우리나라에 소속시켰다. 충숙왕 5년에 초적(草賊) 사용(土用), 엄복(嚴卜)이 폭동을 일으켰던바 이 지방사람 문공제(文公濟)가 군사를 일으켜 그들을 모조리 처단하여 버리고 이 사실을 원나라에 알렸더니 원나라에서 다시 관리를 두었다. 공민왕 11년에 원나라에 소속될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원나라는 부추(副樞) 문아단불화(文阿但不花)를 탐라 만호(萬戶)로 임명하였는데 그는 본국의 천예(賤隸) 김장로(金長老)와 함께 제주에 도착하자 이곳 만호로 있던 박도손(朴都孫)을 잡아 불기를 친 후 바다에 던져 죽였으며 16년에 원나라는 제주를 다시 우리나라에 돌려주었다.⁶⁸⁾

(다) 원종 4년 8월 무신: 흥저, 광왕부 등이 일본으로부터 돌아 와서 왕에게 보고하기를 “해적을 끝까지 추궁해 보니 그것은 대마도에 있는 왜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65) 이영, 「高麗末期의 倭寇構成員에 관한 고찰」, 31쪽.

66) 이영, 앞의 논문, 32쪽.

67) 『고려사』 98, 열전11 고조기 전: 高兆基 初名唐愈 耽羅人 父維 右僕射.

68) 『고려사』 57, 지11 지리2 탐라현: 忠烈王三年 元爲牧馬場 二十年 王朝元 請還耽羅 元丞相完澤等 奏奉聖旨 以耽羅 還隸于我 翊年 乙未 改爲濟州 始以判秘書省事崔瑞 爲牧使 二十六年 皇太后又放廐馬 三十一年 還屬于我 忠肅王五年 草賊土用嚴卜 起兵搆亂 土人文公濟 舉兵盡誅之 聞于元 復置官吏 恭愍王十一年 請隸于元 元以副樞文阿但不花 爲耽羅萬戶 與本國賤隸金長老到州 杖萬戶朴都孫 沈于海 十六年 元以州復來屬.

에게서 쌀 20석, 귀밀 30석, 소가죽 70장을 징벌해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하였다.⁶⁹⁾

(라) 원종 10년 3월 신유: 흑적(黑的)과 신사전(申思佺) 등이 대마도(對馬島)에 이르러 왜인(倭人) 2명을 잡아 돌아왔다.⁷⁰⁾

(가)는 고려 문종대 문신인 고조기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고조기 가문은 그 아버지 고유부터 고려에서 관직생활을 하였다. 고유는 우복야에 이르렀는데 우복야는 상서성(尙書省)의 정2품 관직이었다. 다만 실무직이 아니었기에 재추(宰樞) 반열에 속하지는 않았다. 고조기는 예종대에 과거에 급제하였고 인종대 시어사(侍御史)를 지냈으며 치사(致仕)할 때 벼슬이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에 이르렀다. 중서시랑평장사는 재신(宰臣) 가운데 하나였다. 이를 보면 고유는 비록 재추에 오르지 못했지만 정2품 관직에 올랐고 고조기는 재신의 반열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 재신은 국정을 논의하는 고려의 권력 핵심부에 속한다. 이는 탐라인의 관직 진출에 대하여 큰 차별이 없었으며 이는 고려가 탐라를 고려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대마도인 가운데 고유나 고조기와 같은 예에 해당하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나)는 『고려사』 「지리지」 탐라현 조의 일부이다. 원은 삼별초를 진압한 직후 제주에 탐라국초토사(耽羅國招討使)를 두었다. 이는 원이 고려의 탐라에 대한 종주권을 부정하고 탐라를 일국으로서 대우하여 자기들의 직접적 속국으로 삼으려는 의도에서였다고 하겠다.⁷¹⁾ 그리고 충렬왕대부터 고려가 지속적으로 탐라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하여 종주권이 고려와 원 사이에 오고감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고려 뿐 아니라 원도 제주도를 고려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는 원종 4년에 왜구가 웅신현을 침입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일본에서 대마도 왜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대마도가 타나카 다케오가 이야기하듯이 고려에 있어서 제주도와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면 일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범인을 색출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구에 대한 항의에 일본에서

69) 『고려사』 25, 원종 4년 8월 무신: 洪汙郭王府等 自日本還 奏曰 窮推海賊 乃對馬島倭也 徵米二十石 馬麥三十石 牛皮七十領而來.

70) 『고려사』 26, 원종 10년 3월 신유: 黑的 及申思佺等 至對馬島 執倭二人以還.

71) 진영일, 「고려기 탐라와 성주」, 『고대 중세 제주 역사 탐색』,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200쪽.

대마도 왜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배상품을 징발한 것은 대마도가 일본 영토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라)는 원종 10년에 일본을 초유하러 가던 원의 사절이 일본 본토까지 가지 않고 대마도에서 왜인을 납치하여 온 기록이다. 원은 고려가 항복하자 고려를 통해 일본을 초유하는 사절을 파견하였고 이때 파견된 흑적과 신사전은 대마도에서 왜인을 납치한 뒤 귀환하였다. 이들은 납치한 대마왜인 2명을 데리고 원으로 갔다.⁷²⁾ 이를 보면 그들은 대마도까지만 다녀왔음에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음을 보이기 위해 왜인을 납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고려 뿐 아니라 원 또한 대마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이루어진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위 사료들을 종합해보면 고려의 제주도와 대마도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다르다. 제주도가 비록 반독립적 성격이 있었다하더라도 고려는 자신들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때문에 제주 자체에 성주(星主) 등 지배계층이 있었음에도 의종 16년 최척경(崔陟卿)이 탐라현령(耽羅縣令)으로 처음 부임한 이후 외관들이 계속해서 부임하고 있는 것이다.⁷³⁾ 하지만 이와 달리 대마도로 외관을 파견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고려는 전기에 중국에 대하여는 제후국, 내부적으로 황제국 체제로서 다원적·중층적인 세계관을 지니고 있었고 제주는 황제국 고려의 제후국으로 인식되고 있었다.⁷⁴⁾ 원이 탐라국초토사를 두어 탐라를 일국으로 대우한 것도 그런 인식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즉 고려의 제후국인 탐라를 분리시켜 원의 제후국으로 삼으려했던 것으로 『원사』에 탐라조가 고려조와 나란히 입전되어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⁷⁵⁾ 그러나 대마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다), (라)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듯이 대마도는 고려, 일본 뿐 아니라 원까지도 일본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고려는 제주도를 고려 영역에 포함하여 인식하고 있었지만 대마도는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타나카 다케오의 고려가 제주도와 대마도를 동일하게 인식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오류이다.

다음으로 다카하시 기마아키가 제주도인이 왜구와 연합했다는 근거로 제시한

72) 『고려사』 26, 원종 10년 4월 무인.

73) 진영일, 「고려기 탐라와 성주」, 241-243쪽.

74) 진영일, 앞의 책, 220쪽.

75) 진영일, 앞의 책, 200쪽.

다음의 사료를 보자.

지평(持平) 이의형(李義亨)이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이 진주(晉州)와 사천(泗川) 지방에 많이 우거(寓居)하면서 호적(戶籍)에 (이름을) 등재(登載)하지 아니하고, 해중(海中)에 출몰(出沒)하며 왜인(倭人)의 말을 배우고 의복(衣服)을 입고서, 해물(海物)을 채취(採取)하는 백성들을 침략(侵掠)하니, 청컨대 추쇄(推刷)하여 본고장으로 돌려보내소서.”하니, 임금이 좌우(左右)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윤필상(尹弼商)과 지사(知事) 이극증(李克增)이 대답하기를, “이의형의 말이 옳으나,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이 진주 등지에 와서 우거하면서 해중에 왕래하는 것이 왜놈(倭奴)과 같아서, 만약에 추쇄한다는 소문을 들으면 곧 바다로 나갈 것이니, 쇄환(刷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제주의 수령(守令)의 잘못이다. 어찌하여 백성들을 무휼(撫恤)하지 아니하여 떠돌아다니게 하는가?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추쇄하게 함이 가하다.”하였다.⁷⁶⁾

위 사료는 조선 성종 13년 기록으로 제주도인이 왜어를 배우고 왜복을 입었으며 백성들을 침략하고 있다고 한다. 이영은 이에 대하여 14세기 후반에서 약 1세기가 지난 성종대 사료를 근거로 시기를 거슬러 유추하는 것은 위험하다⁷⁷⁾고 지적하고 있다. 이영의 지적은 정확한 것이라 생각한다. 고려말은 내부적으로 여러 사회 혼란이 가중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일본은 남북조쟁란기였다. 하지만 약 1세기 후인 조선 성종대는 내외 상황이 안정되어 전혀 상황이 달랐다. 그런 조선 성종대의 기록으로 고려말 왜구에 대하여 유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에는 왜구와 대비되는 조선인 해적을 지칭하는 단어로서 수적(水賊)을 이용하고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제주도는 고려의 영역으로 인식되었으므로 제주도인이 왜구 활동에 관여했거나 스스로 왜구로 나섰다면 『고려사』에 왜구와 제주도인 해적을 구분하는 용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고려사』에서 그러한 용어는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다음 사료들을 통해 제주도가 왜구

76) 『성종실록』 성종 13년 윤8월 12일: 持平李義亨啓曰 濟州流移人民 多寓於晉州泗川地面 不載戶籍 出沒海中 學爲倭人言語衣服 侵掠採海人民 請推刷還本. 上問左右領事尹弼商 知事李克增 對曰 義亨之言然矣 流移之民 來寓晉州等地 往來海中 似若倭奴 若聞推刷 則便浮于海 刷還爲難. 上曰 此則濟州守令之過也 何不撫其民 使之流移乎 令觀察使推刷可矣.

77) 이영, 「高麗末期의 倭寇構成員에 관한 考察」, 38쪽.

활동과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마) 원종 11년: 역적 김통정(金通精)이 삼별초(三別抄)를 거느리고 들어와 난을 일으키며 4년 후에 왕이 김방경(金方慶)에게 명하여 이를 진압하게 하였다.⁷⁸⁾

(바) 공민왕 15년 10월: 전라도 도순문사 김유가 병사를 모집하여 배 100척에 갈라 싣고 가서 제주를 토벌하다가 패전하였다.⁷⁹⁾

(사) 공민왕 23년 7월 무자: 임밀 등이 왕에게 말하기를, “제주의 말의 필 수가 2천에 차지 못하면 황제가 반드시 우리들을 죽일 것이니 청컨대 오늘 왕에게서 벌을 받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왕이 대답할 길이 없어서 드디어 제주 정벌을 의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기축일에 문하찬성사 최영을 양광, 전라, 경상도 도통사(都統使)로 밀직제학 염홍방을 도병마사로, 삼사좌사(三司左使) 이희필(李希必)을 양광도 상원수로, 판밀직사사 변안렬(邊安烈)을 그 부원수로, 찬성사 목인길(睦仁吉)을 전라도 상원수로, 밀직 임견미를 그 부원수로 판 승경부사(判崇敬府事) 지윤(池淵)을 경상도 상원수로, 동지밀직사사 나세(羅世)를 그 부원수로 임명하여 각각 그 도의 군사를 영솔하게 하고 지문하사 김유(金庾)를 삼도조전원수(三道助戰元帥) 겸 서해교주도(西海交州道) 도순문사로 임명하여 제주도를 토벌하게 하였다.⁸⁰⁾

(마)는 원종대에 제주로 들어간 삼별초를 진압한 것에 관한 기록으로 이때 제주토벌은 삼별초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바)를 보면 공민왕 15년에 전라도 도순문사 김유가 전라도의 병력을 이끌고 제주를 토벌했으나 실패했는데 김유가 제주도 토벌에 나선 것은 목호(牧胡)가 난을 일으켜 목사와 만호를 살해하였기 때문이다.⁸¹⁾ 왜구와 관련이 없는 군사행동임을 알 수 있다. (사) 역시 이와 다르지 않는데 공민왕대 명은 고려에 말을 요구하였고 고려는 원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78) 『고려사』 57, 지11 지리2 탐라현, 원종 10년: 逆賊金通精 領三別抄 入據作亂 越四年 王命金方慶 討平之.

79) 『고려사』 41, 공민왕 15년 10월: 全羅道都巡問使金庾 募兵得百艘 討濟州敗績.

80) 『고려사』 44, 공민왕 23년 7월 무자: 林密等 白王曰 濟州馬 不滿二千數 則帝必戮吾輩 請今日受罪於王 王無以對 遂議伐濟州 己丑 命門下贊成事崔瑩 爲楊廣全羅慶尙道都統使 密直提學廉興邦 爲都兵馬使 三司左使李希泌 爲楊廣道上元帥 判密直司事邊安烈 爲副元帥 贊成事睦仁吉 爲全羅道上元帥 密直林堅味 爲副元帥 判崇敬府事池淵 爲慶尙道上元帥 同知密直司事羅世 爲副元帥 各將其道兵 知門下事金庾 爲三道助戰元帥兼西海交州道都巡問使 往討之.

81) 『고려사』 57, 지11 지리2 탐라현.

로 제주에서 말을 징발하려했는데 목호들의 반항으로 2,000필을 채우기 어려웠다. 이에 공민왕 23년 최영을 도통사로 삼아 제주를 토벌한 것으로 역시 왜구와 별개인 사건이다.

위 사건들을 살펴보면 고려 후기 제주에 대한 고려의 군사행동은 모두 왜구와 무관함을 알 수 있다. (마)는 제주도를 들어간 삼별초 진압, (바), (사)는 목호를 진압하기 위한 군사행동이었다. 만약 제주도인이 왜구와 연합을 하고 있었다면 적어도 왜구 활동이 활발하던 공민왕대 제주토벌에 관한 기록에 왜구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다음 사료들을 보면 더더욱 그렇다.

(아) 우왕 13년: 정지(鄭地)가 글을 올려 스스로 동정(東征)하기를 청하기를, “근자에 중국(中國)이 왜(倭)를 정벌(征伐)한다고 소리쳐 말하니 만약 우리 국경에까지도 전함(戰艦)을 나누어 정박시킨다면 다만 그 지대(支待)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허실(虛實)을 엿볼까 두려워하나이다. 왜(倭)는 온 나라가 모두 도적질을 함이 아니요 그 반민(叛民)이 대마도(對馬島)와 일기도(一岐島)에 웅거하여 이 섬들이 우리 동쪽 해안에 가까움으로 때도 없이 침구하여 음이니 만약 그 죄를 성언(聲言)하고 대거(大舉)하여 먼저 이 섬들을 쳐서 그 소혈(巢穴)을 전복하고 또 일본에 글을 보내어 도망한 적을 쇄환(刷還)시켜 귀순케 한다면 왜(倭)의 근심을 가히 길이 덜고 중국(中國)의 군사가 또한 인하여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수군(水軍)은 다 수전(水戰)을 잘하여 신사년(辛巳年)에 동정(東征)할 때의 몽한병(蒙漢兵)이 주楫(舟楫)에 익숙하지 못함과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만약 때를 순응하고 바람을 기다려 움직인다면 성공(成功)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다만 배는 오래되면 썩고 군사는 늙으면 피로하는 것이며 또한 지금 수군이 용역에 피곤하여 날로 도망하고 흩어지기를 생각하오니 마땅히 이 기회를 타서 모책을 결단하여 소탕할 것이요 가히 늦추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82)

(자) 또 전함 100척을 가지고 대마도(對馬島)를 공격하여 왜군의 선박 300척과 그 근방 해안의 건물들을 거진 다 불살라버렸다. 원수 김종연(金宗衍), 최칠석(崔七夕), 박자안(朴子安) 등이 뒤따라 왔으므로 그들과 함께 놈들에게 붙잡혀갔던 우리 사람 남녀 100

82) 『고려사』 113, 열전 26 정지 전, 우왕 13년: 地上書 自請東征曰 近中國 聲言征倭 若並我境 分泊戰艦 則非惟支待爲艱 亦恐覘我虛實 倭非學國爲盜 其叛民 據對馬一歧諸島 近我東鄙 入寇無時 若聲罪 大舉先攻諸島 覆其巢穴 又移書日本 盡刷漏賊 使之歸順 則倭患可以永除 中國之兵 亦無因而至矣 今之水軍 皆善水戰 非辛巳東征蒙漢兵不習舟楫之比 若順時候風而動 則易以成功 但船久則朽 師老則疲 且今船卒 困於徭賦 日思逃散 宜乘此機 決策蕩平 不可遲疑.

여 명을 찾아 데려왔다.⁸³⁾

(아)는 우왕 13년 정지가 대마도와 일기도를 토벌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명이 우왕 11년 직접 왜구를 토벌하겠다고거나⁸⁴⁾ 우왕 13년에 왜구 토벌 등을 요구하는 상황⁸⁵⁾에서 나온 건의이다. 왜구를 빌미로 명군(明軍)이 고려 경내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근거지를 직접 토벌함으로써 왜구를 근절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여기서 왜구 근거지로 지목된 곳은 대마도와 일기도이다. 타나카 다케오나 다카하시 기마야키의 주장처럼 제주도인이 왜구와 연합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제주도도 언급됐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자)는 창왕 원년 2월 박위 등이 대마도를 정벌한 기록이다. 여기서도 왜구 근거지로 토벌 대상이 된 것은 대마도뿐이며 이외에도 왜구와 제주도를 연결시키는 사료는 찾아볼 수 없다.

(마)에서 (자)까지 사료를 검토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제주도인이 왜구임을 나타내는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타나카 다케오나 다카하시 기마야키가 이야기한 것과 달리 고려에 있어서 제주도와 대마도가 갖는 위치는 전혀 다를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사료들은 왜구의 근거지로서 대마도와 일기도를 계속 지목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물론 공민왕 21년에 명이 목호와 왜구가 연합하면 진압하기 어려울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지만⁸⁶⁾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려에 제주의 목호를 제압할 것을 독촉하기 위한 언급일 뿐이다. 이상과 같이 제주도인과 왜구가 연합한 근거는 전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타나카 다케오와 다카하시 기마야키의 제주도인 왜구설은 근거가 빈약하며 왜구 구성원이 민족과 국경을 초월한다는 주장에 맞춘 억측에 불과하다.

83) 『고려사』 116, 열전 29 박위 전: 又以戰艦百艘 擊對馬島 燒倭船三百艘 及傍岸廬舍 殆盡 元帥金宗衍崔七夕朴子安等 繼至 搜本國 被虜男女百餘人 以還.

84) 『고려사』 135, 우왕 11년 12월.

85) 『고려사』 136, 우왕 13년 5월.

86) 『고려사』 43, 공민왕 21년 9월 임술.

IV. 왜구 활동과 실체

1. 왜구 활동을 통해 본 왜구의 실체

앞 장에서 왜구가 고려인과 일본인이 연합한 세력이라거나 오히려 고려인이 주체였다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왜구 등장 원인과 고려의 대응책, 가왜 활동, 이순몽의 상서, 제주도인 왜구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왜구가 일본인으로 구성된 집단이었음은 분명해졌다. 하지만 일본인이 모두 왜구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에는 남북조쟁란에 의한 혼란으로 통제력이 약화되고 생활고가 가중되자 규슈, 대마도, 일기도, 송포 등 변민(邊民)이 왜구 활동에 나선 것으로 이해하거나⁸⁷⁾ 당시 규슈에서 막부군과 대결을 펼치던 남조군이 전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왜구 활동을 벌인 것으로 보기도 한다.⁸⁸⁾ 그런데 고려 후기 왜구 활동을 규슈와 도서지역 변민들에 의한 것으로만 이해할 경우 최대 500척에 달하는 대규모 침입⁸⁹⁾이나 기습을 통한 고려군에 입힌 궤멸적 타격⁹⁰⁾은 설명할 수 없다. 변민이 아닌 다른 존재가 왜구 활동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때문에 다음 사료가 주목된다.

(가) 지금 우리의 서해도 일대와 규슈에 난신들이 할거하여 공납을 바치지 않은 것이 20여 년이나 되었다. 그런데 서쪽 바다에 있는 섬의 완고한 백성들(頑民)이 틈을 엿보아 귀국을 침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조정에서 장수를 보내어 토벌하는데 그 지방에 깊이 들어가서 날마다 서로 싸우고 있다. 이제 규슈만 평정하면 해구(海寇)를 금할 수 있음을 하늘에 맹세하고 약속한다.⁹¹⁾

87) 김상기, 『신편 고려시대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박용운, 『고려시대사』, 일지사, 2003; 이영, 「고려 말 왜구의 허상과 실상」, 『대구사학』 91, 2008.

88) 이영, 「고려 말 왜구의 허상과 실상」, 『대구사학』 91, 2008.

89) 『고려사』 권126, 열전 39, 변안렬 전.

90) 『고려사』 권44, 공민왕 23년 4월 임자.

91) 『고려사』 133, 우왕 2년 10월: 惟我西海道一路 九州亂臣割據 不納貢賦且二十餘年矣 西邊海道頑民 觀變出寇 非我所爲 是故 朝廷遣將征討 采入其地 兩陣交鋒 日以相戰 庶幾克復九州 則誓天指日 禁約海寇.

(나) 귀국을 침범하는 좀 도적들은 우리나라에서 도망쳐 간 무리로서 우리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니 금지하기가 용이하지 않다.⁹²⁾

(가)는 일본에서 우왕 2년에 고려로 보내온 첩장의 내용으로 당시 규슈의 상황과 왜구의 실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우왕 2년은 원료준이 남조군과 규슈에서 대결하고 있었다. ‘난신이 할거’한다거나 ‘장수를 보내어 토벌하는데 그 지방에 깊이 들어가서 날마다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것은 그런 상황에 대해 설명이며 고려를 침입하는 ‘서쪽 바다에 있는 섬의 완고한 백성들(頑民)’은 기존에 설명하는 변민과 동일한 존재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는 변민이 왜구 활동을 벌이고 있었음을 의미함으로 남북조쟁란기의 혼란을 틈타 변민이 고려를 침입했다는 기존의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는 우왕 3년에 고려로 보내온 일본의 첩장 내용인데 왜구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도망쳐 간 무리’라 이야기하고 있다. (가)에서 완민(頑民)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가)에서는 분명히 혼란을 틈타 고려에 침입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과 달리 ‘도망쳐간 무리’라 표현했다. 그러므로 (나)의 왜구에 대한 설명은 완민이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한 설명으로 봐야한다.

기존의 왜구에 대한 설명이나 (가)를 통해서 변민이 왜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나)에서는 변민과 다른 존재가 왜구 활동을 벌이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왜구는 일본인으로 구성된 집단임에는 틀림없고 다만 변민 이외 왜구 활동을 벌인 존재를 밝힐 필요가 있다. 다음 사료를 통해 그 단서를 찾아보자.

(다) 공민왕 23년 4월 임자: 왜선 350척이 경상도 합포에 침입하였는데 군영과 병선을 불타고 살해당한 병사가 5,000여 명에 이르렀다. 조림(趙琳)을 파견하여 도순문사 김횡(金鉉)을 베게 하고 그 팔다리를 뜯어 여러 도에 돌렸다.⁹³⁾

(라) 우왕 6년 8월: 왜적의 배 500척이 진포(鎭浦) 어귀에 들어와 큰 밧줄로 서로 잡아

92) 『고려사』 133, 우왕 3년 8월: 草竊之賊 是逋逃輩 不遵我令 未易禁焉.

93) 『고려사』 권44, 공민왕 23년 4월 임자: 倭船三百五十艘 寇慶尙道合浦 燒軍營兵船 士卒死者五千餘人 遣趙琳 誅都巡問使金鉉 支解以徇諸道.

매고 군사를 나누어 지키다가, 드디어 해안으로 올라 각 주군(州郡)으로 흩어져 들어가서 마음대로 불사르고 노략질하니, 시체가 산과 들에 덮이고, 곡식을 그 배에 운반하느라고 땅에 쏟아진 쌀이 한 자나 되었다.⁹⁴⁾

(다)에서 왜구는 350척의 선박으로 합포를 기습하여 고려군에 궤멸적인 타격을 입혔는데 병사가 5,000명이 살해당했다. 이 사건은 고려 조정에 큰 충격이었고 때문에 지휘관인 김훤의 책임을 물어 처형하고 사지를 찢어 전국에 돌려 경계로 삼았다.

(라)에서 왜선 500척이 진포로 침입하여 주변 주군을 약탈하였는데 그 피해가 막대하다. 이때 침입은 고려 후기 왜구 침입 가운데 최대 규모로 나세, 심덕부, 최무선 등이 전선 100척에 화포를 싣고 출정하여 왜선을 모두 불사르지만 상륙해 있던 왜구들은 고려 내륙을 횡행하며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다)와 (라)에서 침입한 왜선은 각각 350척, 500척의 대규모로 어느 정도 병력이 침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고려 후기 왜선에 15명, 13명, 6-8명, 18명, 32명이 탑승한 예가 확인됨으로⁹⁵⁾ (다)에서 침입한 왜구는 7,000명, (라)에서는 10,000명 내외로 추정 가능하다.⁹⁶⁾ 이 정도 규모라면 생활고에 시달린 변민에 의한 침입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다)에서는 합포에 대한 기습을 감행하였고 (라)에서 침입한 왜구는 이후에 사근내역(沙斤乃驛)에서 고려군과 싸워 박수경(朴修敬), 배언(裴彦)을 비롯한 고려군 500여명을 전사시키며 승리하였다. 변민이 군사기지를 기습하거나 정규군을 상대로 승리하는 등 전략적인 행동과 높은 전투수행능력을 보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계속해서 다음 사료를 보자.

우왕 2년: 왜적이 부여(扶餘)를 침공하고 공주에까지 침입하였다. 목사 김사혁(金斯革)이 정현(鼎峴)에서 싸워 패하였으므로 적은 드디어 공주를 함락시켰다. 양광도원수 박인계(朴仁桂)가 응원전에 나서지 않은 공주의 속현인 회덕현(懷德縣) 감무(監務) 서천

94) 『고려사절요』 권31, 우왕 6년 8월: 倭賊五百艘 入鎮浦口 以巨絙相維 分兵守之 遂登岸散入州郡 恣行焚掠 屍蔽山野 轉穀于其船 米棄地厚尺.

95) 『고려사』 권22, 고종 14년 4월; 『고려사』 권37, 충정왕 2년 5월 경진; 『고려사』 권39, 공민왕 10년 2월; 『고려사』 권137, 창왕 즉위년 8월; 『고려사』 권116, 열전 29, 박위 전.

96) 확인 가능한 승선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다)에서는 2,100명에서 11,200명, (라)에서는 3,000명에서 16,000명이 침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가 넓기에 왜선 한 척당 20명 내외로 승선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필자주]

부(徐天富)를 베었다. 또 왜적이 석성(石城)을 침공하고 연산현(連山縣) 개태사(開泰寺)로 가는 것을 박인계가 맞받아 싸우다가 말 등에서 떨어져 피살되니 적은 개태사를 도륙하였다.⁹⁷⁾

위 사료를 보면 왜구의 전투수행능력이 고려군에 뒤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왜구는 공주와 부여를 함락시키고 이를 격퇴하려 나선 양광도원수 박인계의 고려군과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개태사를 약탈하였는데 이 싸움에서 박인계는 전사하였다. 양광도원수인 박인계가 지휘한 병력은 양광도 병력의 핵심전력이었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런 병력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정도로 왜구는 전투수행능력이 뛰어났다. 따라서 이때 침입한 왜구도 변민집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 사료를 보자.

아군은 그를 아지발도(阿只拔都)라고 부르며 모두 피해 달아났다. 태조 이성계는 그의 용예(勇銳)함을 아껴 이두란에게 생포하라고 명령하니 이두란이 말하기를,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을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그는 견고한 갑옷을 입었고 면상에는 구리 면(面)을 쓰고 있어서 조금도 틈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태조 이성계는 말하기를, “내가 적장의 투구 윗꼭지를 쏘 터이니 투구가 떨어지면 네가 쏘아라.”하고 말을 달려 나가며 쏘니 바로 그 꼭지에 맞아서 투구끈이 끊어지며 한편으로 기울어졌다. 이에 적장은 급히 투구를 바로 잡아 썼으나 즉시 태조 이성계가 쏘아서 또다시 투구 꼭지에 명중되어 투구가 드디어 떨어졌다. 그 순간에 이두란이 쏘서 그를 죽였다.⁹⁸⁾

위 사료는 사근내역에서 고려군이 패하자 응원에 나선 이성계가 운봉현(雲峰縣)에서 왜구와 전투를 벌이는 내용 중 일부다. 이를 보면 아지발도는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있었을 뿐 아니라 얼굴에도 구리로 된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어 중무장한 일본 무사를 떠올리게 한다. 생활고에 시달려 왜구 활동에 나선 변민들이 이러한 중무장을 갖춘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능력이 된다하더라도 지방

97) 『고려사』 권133, 우왕 2년 7월: 倭寇 扶餘至公州 牧使金斯革 戰于鼎峴 敗績 賊 遂陷公州 楊廣道元帥朴仁桂 以屬縣懷德監務徐天富 不赴救 斬之 賊 又寇石城 趣連山縣開泰寺 仁桂迎戰 墮馬被殺 賊 屠開泰寺.

98) 『고려사』 권126, 열전 39, 변안일 전: 我軍 稱阿只拔都 爭避之 太祖 惜其勇銳 命豆蘭 生擒之 豆蘭白曰 不殺必傷人 其將 身被堅甲 又帶銅面具 無隙可射 太祖曰 我射兜牟頂子 兜牟落 汝便射之 遂躍馬射之 正中頂子 兜牟纒絕而側 其將急整之 太祖 卽射之 又中頂子 兜牟遂落 豆蘭 便射殺之.

영주나 무사계층이 아니면 갖출 수도 없었다. 그렇다면 아지발도는 적어도 무사계층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아지발도가 지휘하던 병력은 (라)를 통해 확인했듯이 10,000명 내외이다. 고려가 요동원정에 50,000여명의 병력을 동원했던 것을 감안하면 대규모 부대임을 알 수 있다. 이런 병력을 이끌던 아지발도를 하위 무사로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상당한 세력을 보유한 무사이거나 지방영주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사료들을 살펴보면 생활고에 시달려 왜구 활동에 나선 변민이라 하기는 어렵다. 소규모 해적행위라면 변민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수천에서 1만에 이르는 대규모 병력과 고려군사기지에 대한 기습, 전투에서 승리 등 전략적인 행동, 지휘관인 아지발도의 무장수준 등은 변민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일본의 지방영주에 의한 침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고려의 왜구 인식 변화를 통해 본 왜구의 실체

왜구 활동에 변민 이외 존재가 참여하고 있었음은 왜구에 대한 고려의 인식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왜구와 일본에 대한 인식은 시기에 따라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런 인식의 변화는 고려가 왜구의 정체에 대해 파악한 것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시기별 왜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자.

(가) 고종 14년: 이해에 급제 박인(朴寅)을 예빙사로 일본에 파견하였다. 이때에 왜적이 주, 현들을 침략하므로 국가에서 이것을 걱정하여 박인에게 공문을 주어 보내 대대로 우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침략하여서는 안 된다고 타일렀더니 일본에서 침략을 일삼던 왜적을 찾아내어 죽였다. 이리하여 그들의 침략 행위가 좀 잠잠하여졌다.⁹⁹⁾

(나) 원종 4년 4월: 대관서승(大官署丞) 홍저(洪佇), 첨사부녹사(詹事府錄事) 곽왕부(郭王府) 등을 일본국에 보내 해적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통첩 내용은 다음과 같

99) 『고려사』 권22, 고종 14년: 是歲 遣及第朴寅 聘于日本 時 倭賊 侵掠州縣 國家患之 遣寅齎牒 諭以歷世和好 不宜來侵 日本 推檢賊倭 誅之 侵掠稍息.

다. “두 나라가 교통한 이래 매년 정상적인 헌납(進奉)은 한 번이고, 한 번에 배는 2척으로 결정하였으며 만일 그 밖의 배가 다른 일을 빙자하여 우리의 연해 지방 촌락, 동리들을 소란케 할 때에는 엄격히 처벌하며 금지하기로 약정하였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서 2월 22일 귀국에 배 한 척이 이유 없이 우리 국경 내의 웅신현(熊神縣) 지경 물도(勿島)에 침입하여 그 섬에 정박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공납물 수송선들에 실었던 화물 쌀 도합 120석과 명주 도합 43필을 약탈하여 갔으며 또 연도(椽島)에 들어 와서 주민들의 의복, 식량 등 생활 필수 물자들을 모조리 빼앗아 갔으니 이러한 사실들은 원래 약정하였던 호상 교통의 본의와 대단히 위반되는 것이다. 지금 흥저 등을 시켜 통첩을 가지고 가게 하니 공식통첩을 상세히 보는 동시에 사신들의 구두 전달을 잘 듣고 전기 약탈자들을 끝까지 추궁하여 찾아내어 모두 징벌 제어함으로써 두 나라 간의 화친의 도리를 공고하게 할 것을 바란다.”라고 하였다.¹⁰⁰⁾

충정왕 2년 이전 왜구에 대한 인식은 (가), (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가)에서 고려는 ‘대대로 우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침략하여서는 안 된다’라며 양국의 우호관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왜구 침입에 대하여 항의하고 있는 것이다. (나)에서는 (가)보다 더 강경하게 항의하고 있다. 우선 진봉관계에 대하여 언급하고 ‘약탈자들을 끝까지 추궁하여 찾아내어 모두 징벌 제어함으로써 두 나라 간의 화친의 도리를 공고하게 할 것을 바란다.’라고 하여 왜구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없을 경우 진봉관계를 단절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이를 통해 충정왕 2년 이전에 고려가 일본과 왜구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구 활동은 충정왕 2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고 규모도 커졌지만 고려는 왜구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일본과 왜구를 분리하지 않는 이러한 인식은 공민왕대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사료를 보자.

공민왕 15년 11월 임진: 검교중랑장(檢校中郎將) 김일(金逸)을 일본에 파견하여 해적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였다.¹⁰¹⁾

100) 『고려사』 권25, 원종 4년 4월: 遣大官署丞洪沆 詹事府錄事郭王府等 如日本國 請禁賊 牒曰 自兩國交通以來 歲常進奉 一度船 不過二艘 設有他船 枉憑他事 濫擾我沿海村里 嚴加徵禁 以爲定約 越今年二月 二十二日 貴國船一艘 無故來入我境內熊神縣界勿島 略其島所泊 我國貢船所載 多般穀米并一百二十石 紬布并四十三匹 將去 又入椽島 居民衣食資生之具 盡奪而去 於元定交通之意 甚大乖反 今遣洪沆等 齎牒以送 詳公牒 并聽口陳 窮推上項奪攘人等 盡皆徵沮 以固兩國和親之義.

101) 『고려사』 권41, 공민왕 15년 11월 임진: 遣檢校中郎將金逸 如日本請禁海賊.

위 사료는 충정왕 2년 이후 처음 확인되는 왜구 금지를 요구하는 사절 파견으로 이때부터 공민왕 17년까지 일본과 활발한 사절 교환이 있었다. 특히 대마도만호 송종경(崇宗慶)¹⁰²에게 쌀 1,000석을 하사하는 등 대마도와 관계 개선이 눈에 띈다. 이 시기 왜구 활동은 크게 줄어들어서 공민왕 18년 10월까지 단 1회 침입만이 확인된다. 대마도는 왜구의 근거지 중 한 곳이며 침입할 때 경유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고려와 관계가 개선된 대마도에서 왜구를 단속하여 왜구 활동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도 고려는 왜구를 일본과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았다. 일본과 관계가 개선되며 왜구 활동이 감소하자 왜구를 일본에서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했다.

고려가 왜구를 일본과 분리하여 인식하게 되는 것은 우왕대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이영과 김기섭은 우왕초기로 이해하고 있지만¹⁰³ 다음 사료를 보면 우왕중기 이후에 인식 변화가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우왕 3년 6월: 판전객시사(判典客寺事) 안길상(安吉祥)을 일본에 파견하여 해적 금지를 요구하는 다음 내용의 서한을 전하였다. “우리나라는 귀국과 인방 관계에 있어 비록 큰 바다가 사이에 막혀 있으나 대대로 우호 관계를 가져오던 터인데 경인년부터 해적들이 나타나서 우리나라 섬 백성을 침요하기 시작하여 백성들이 모두 손상을 입고 있는 것은 매우 민망한 일이다. 이 까닭에 병오년에 만호(萬戶) 김룡(金龍) 등을 보내 사태를 통보하였으며 그때 해적을 금지하겠다는 정이대장군(征夷大將軍)의 약속을 받아 온 후 한동안 침식되었더니 갑인년 이래로 해적이 또다시 창궐하므로 판전객시사 나홍유를 재차 귀국에 보내 양국 간에 해적이 또 준동하고 있는 것은 실로 불상사라는 뜻을 전하였던 것이다. 그 후 나홍유가 가져 온 귀국의 회답문에 의하면 이 해적들은 귀국 서해 일대와 규슈 지방의 난신들이 서부 섬들을 할거하고 있으면서 우매하게도 도적질을 하는 것이요. 사실 나라에서 시킨 것이 아니므로 감히 즉시로 금지를 약속할 수 없다고 서술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사태를 고찰하여 본다면 백성을 다스리고 도적을 금지하는 것은 나라의 떳떳한 법인 이상 진실로 금지 약속을 이행하려고

102) 송종경(崇宗慶)은 『고려사』에 대마도만호(對馬島萬戶)로 등장하는 인물로 쓰시마(對馬島) 슈고다이(守護代) 소 쓰네시게(宗經茂)와 동일 인물이다. 본고에서는 『고려사』의 기록에 따라 송종경으로 표기한다. [필자주]

103) 이영, 「고려의 대일(對日) 인식」, 『일본문화학보』 12, 한국일본문화학회, 2002; 김기섭, 「14세기 倭寇의 동향과 고려의 대응」, 『한국민족문화』 9,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7.

만 한다면 해적들이 이에 복종하지 않을 리가 없을 것이다. 두 나라의 우호와 항로의 안정 여부가 전혀 귀국의 처리 여하에 달린 것이다.”¹⁰⁴⁾

위 사료는 우왕 3년에 판전객시사 안길상을 일본에 파견하며 보낸 첩장 내용으로 고려는 이미 우왕 원년에 판전객시사 나홍유를 파견하여 일본에서 보낸 답서를 받은 적이 있었다. 당시 일본은 내전상태에 있던 규슈지역 사정을 설명하고 왜구는 자신들이 아니라 혼란을 틈탄 완민들이 하는 행위이며 원료준 등을 파견하여 싸우고 있으니 규슈를 평정하면 왜구를 금지시킬 수 있다고 약속하였다. 우왕 3년에 다시 안길상을 파견한 것은 그런 약속을 했음에도 왜구 활동이 더욱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백성을 다스리고 도적을 금지하는 것은 나라의 떳떳한 법인 이상 진실로 금지 약속을 이행하려고만 한다면 해적들이 이에 복종하지 않을 리가 없을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때까지 고려가 일본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계속된 교섭을 통해 우왕 중기 이후 남북조쟁란기라는 일본 내부 사정에 대한 이해가 늘어난다. 위 사료에서도 나와 있듯이 일본은 이미 ‘서해 일대와 규슈 지방의 난신들이 서부 섬들을 할거하고 있으면서 우매하게도 도적질을 하는 것’이라고 내부 사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규슈탄다이 원료준은 우왕대에 5차례에 피랍인 734명을 송환하였고¹⁰⁵⁾ 두 차례 병력을 파견하여 왜구 격퇴에 협력하였다.¹⁰⁶⁾ 더구나 고려는 우왕대에 최소 다섯 차례 사절을 일본에 파견하였다.¹⁰⁷⁾ 고려는 송환된 피랍인, 사절, 고려에 파견된 원료준의 병력 등을 통해 일본 내부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왕 중기 이후 일본과 왜구를 분리하여 인식하게 되었다. 다음 사료를 보자.

104) 『고려사』 권133, 우왕 3년 6월: 遣判典客寺事安吉祥 于日本 請禁賊 書曰 本國 與貴邦爲隣 雖隔大海 或時通好 歲自庚寅 海盜始發 擾我島民 各有損傷 甚可憐愍 因此 丙午年間 差萬戶金龍等 報事意 卽蒙征夷大將軍禁約 稍得寧息 近自 甲寅以來 其盜 又肆猖蹶 差判典客寺事羅興儒 齋咨再達 兩國之間 海寇造孽 實爲不祥事意 去後 據羅興儒齋來貴國回文言稱 此寇 因我西海一路 九州亂臣 割據西島 頑然作寇 實非我所爲 未敢卽許禁約 得此叅詳 治民禁盜 國之常典 前項海寇 但肯禁約 理無不從 兩國通好 海道安靜 在於貴國處之如何耳.

105) 『고려사』 권134, 우왕 5년 7월; 『고려사』 권134, 우왕 8년 2월; 『고려사』 권135, 우왕 9년 9월; 『고려사』 권135, 우왕 10년 8월; 『고려사』 권136, 우왕12년 7월.

106) 『고려사』 권133, 우왕 4년 6월; 『고려사』 권134, 우왕 5년 5월.

107) 『고려사』 권133, 우왕 2년 10월; 『고려사』 권133, 우왕 3년 6월; 『고려사』 권133, 우왕 3년 9월; 『고려사』 권 133, 우왕 4년 10월; 『고려사』 권134, 우왕 5년 윤5월.

우왕 13년 8월: 정지(鄭地)가 글을 올려 동쪽을 치기를 자청하여 말하기를, “왜국은 온 나라가 도적이 아니고, 그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킨 백성들이 대마와 일기(一岐) 두 섬을 나누어 점령하였는데, 합포(合浦)와 가깝기 때문에 무시로 들어와 도둑질하는 것이니, 만일 죄를 성토하고 크게 군사를 일으켜 그 소굴을 전복시킨다면, 변방의 근심이 영구히 없어질 것입니다. 또 지금의 수군은 신사년 동정할 때 배에 익숙하지 못한 몽고병이나 한병(漢兵)과는 비교가 안 되오니, 순풍을 만나서 가면, 두 섬을 한꺼번에 섬멸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¹⁰⁸⁾

위 사료는 정지가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와 일기도를 공격할 것을 건의하는 글로 ‘왜국은 온 나라가 도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일본과 왜구를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이전에 왜구는 일본해적임에도 일본 조정이 단속하기 어렵다고 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더구나 ‘그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킨 백성들이 대마와 일기(一岐) 두 섬을 나누어 점령하였는데’라는 부분에서는 고려가 외교교섭 대상인 무로마치막부, 즉 북조에 대한 반란세력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가 인식한 반란세력이 남조군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사료만으로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고려가 막부와 다른 세력이 존재하며 그들이 왜구 활동을 벌이고 있음을 인식했다는 사실이다.

고려는 우왕 초기까지도 왜구를 일본인 해적집단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이를 금지하지 못하는 것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한 사실은 안길상을 통해 보낸 첩장 내용으로 알 수 있다. 이때까지 고려는 왜구를 변민이나 일본에서 직접 설명한 완민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왕대에 연 17.4회에, 최대 500척에 이르는 대규모 침입은 왜구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했을 것이고 활발한 일본과 교섭을 통해 일본 내부 사정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면서 인식에 변화가 생겼다. 왜구가 단순한 변민, 완민이 아닌 일본 조정과 다른 존재, 반란세력이라 인식하게 된 것이다.

도현철은 고려가 왜구와 일본은 분리해서 인식했음은 지적했지만 고려가 왜구

108) 『고려사절요』 권32, 우왕 13년 8월: 鄭地上書 自請東征曰 倭非舉國爲盜 其國叛民 分據對馬一岐兩島 隣於合浦 入寇無時 若聲罪大學 覆其巢穴則 邊患永除矣 且今水軍 非辛巳東征蒙漢兵 不習舟楫之比也 順風而往則 二島一舉可滅.

를 해적으로 여기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¹⁰⁹⁾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는 왜구를 단순히 해적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일본 조정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왜구 활동은 크게 두 가지 존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존 연구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변민, 완민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들이 남북조쟁란기의 혼란을 틈타 고려를 침입하였다. 두 번째는 영주세력이다. 충정왕 2년 이후 최대 500척의 선박을 동원하여 수차례 고려의 군사기지를 공격하여 큰 피해를 입혔으며 고려군을 상대로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전력으로 승리하는 등 뛰어난 전투수행능력은 변민이 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단위 병력동원과 온몸을 감주로 중무장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는 일본의 영주세력과 무사 이외에 생각할 수 없다.

3. 왜구 주체로서 대마도만호 송종경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 후기 왜구는 변민과 완민에 의한 소규모 해적행위와 지방영주세력에 의한 대규모 침입행위로 나뉘어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왜구의 주체는 지방영주세력이며 이영은 그 실체로 대마도의 송종경(崇宗慶)을 지목하고 있다.¹¹⁰⁾ 이영의 이러한 주장은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 알아보자.

(가) 지금 우리의 서해도 일대와 규슈에 난신들이 할거하여 공납을 바치지 않은 것이 20여 년이나 되었다. 그런데 서쪽 바다에 있는 섬의 완고한 백성들(頑民)이 틈을 엿보아 귀국을 침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¹¹¹⁾

(나) 왜국은 온 나라가 도적이 아니고, 그 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킨 백성들이 대마와 일

109) 도현철, 「고려말 사대부의 일본 인식과 문화 교류」, 『한국사상사학』 32, 2009.

110) 이영, 「고려 말 왜구의 허상과 실상」, 82-83쪽.

111) 『고려사』 권133, 우왕 2년 10월: 惟我西海道一路 九州亂臣割據 不納貢賦且二十餘年矣 西邊海道頑民 觀鬻出寇 非我所爲.

기(一岐) 두 섬을 나누어 점령하였는데, 합포(合浦)와 가깝기 때문에 무시로 들어와 도독질하는 것이다.¹¹²⁾

(다) 공양왕 원년 2월: 경상도 원수 박위(朴葳)가 병선 100척을 거느리고 대마도를 쳐서 왜적의 배 300척과 막사를 불살라 거의 없애 버렸다.¹¹³⁾

위 사료는 왜구의 근거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가)에서는 ‘서쪽 바다에 있는 섬’을 지목하고 있는데 이는 대마도, 일기도 등으로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다. (나)에서도 대마도와 일기도를 왜구의 근거지로 직접 지목하고 있다. (다)에서 박위는 대마도를 직접 공격하여 왜구 근절에 나서고 있는데 실제로 이때 정벌 이후 왜구 활동은 소강상태에 있었다. 위 사료를 바탕으로 할 때 왜구는 대마도, 일기도의 영주세력이며 특히 다음 사료를 통해 대마도가 왜구 활동의 중심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공민왕 17년 7월 기묘: 대마도 만호가 사자를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¹¹⁴⁾

공민왕 17년 윤7월: 강구사(講究使) 이하생(李夏生)을 대마도(對馬島)에 파견하였다.¹¹⁵⁾

공민왕 17년 11월 병오: 대마도만호(對馬島萬戶) 승종경(崇宗慶)이 사자를 파견하여 입조(入朝)하였으므로 승종경에게 쌀 1,000석을 주었다.¹¹⁶⁾

위 사료들은 공민왕 15년 김일의 파견 후 공민왕 17년에 고려와 대마도의 외교관계를 보여주는데 이를 보면 상당한 관계 개선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왜구 활동은 확인되지 않는다. 대마도와 관계가 개선되면서 왜구 활동이 없었다는 것은 대마도 영주인 승종경이 왜구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었음을 방증한다. 이는 이영이 주장하듯이 승종경이 왜구의 주체이거나 적어도 왜구를 통제 가능한 위치에 있었음을 의미한다.¹¹⁷⁾

112) 『고려사절요』 권32, 우왕 13년 8월: 鄭地上書 自請東征曰 倭非舉國爲盜 其國叛民 分據對馬一岐兩島 隣於合浦 入寇無時.

113) 『고려사절요』 권34, 공양왕 원년 2월: 慶尙道元帥朴葳 以兵船一百艘 擊對馬島 燒倭船三百艘廬舍殆盡.

114) 『고려사』 권41, 공민왕 17년 7월 기묘: 對馬島萬戶 遣使 來獻土物.

115) 『고려사』 권41, 공민왕 17년 윤7월: 遣講究使李夏生 于對馬島.

116) 『고려사』 권41, 공민왕 17년 11월 병오: 對馬島萬戶崇宗慶 遣使 來朝賜 宗慶 米一千石.

117) 이영, 「고려 말 왜구의 허상과 실상」, 23쪽.

고려와 일본에서 대마도를 일기도와 함께 왜구의 근거지로 지목하고 있었다는 점, 고려가 대마도를 정벌한 뒤 왜구가 크게 감소한다는 점, 공민왕대 대마도와 관계가 개선된 시점에 왜구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왜구의 주체를 대마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없다. 따라서 왜구의 주체를 대마도만호인 송종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왜구 활동에 송종경이 직접 개입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 사료를 보자.

처음에 아지발도는 그 섬(島)에 있으면서 오지 않으려 하였으나 적들이 그의 용예함에 감복하여 군이 청하여 데려 왔는데 적의 여러 두목들이 매양 그 자 앞에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빠른 걸음으로 나가서 무릎을 꿇고 앉았으며 또 군중(軍中)의 지휘명령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다.¹¹⁸⁾

위 사료는 운봉현에서 이성계와 싸웠던 아지발도에 관한 것으로 아지발도는 고려에 침입하는 왜구를 총지휘하고 있다. 만약 송종경이 여기에 개입했다면 아지발도는 송종경이 임명해야 하지만 사료에는 ‘적의 여러 두목들’이 아지발도를 총지휘관으로 추대한 송종경이 개입했다는 단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자발적인 행동이다. 게다가 ‘적의 여러 두목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왜구들이 원래 여럿으로 나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추정해보면 왜구는 하나의 커다란 집단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규모 집단들이 필요에 따라 모이거나 흩어졌던 것이다.

이는 송종경이 왜구 활동에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니라 휘하 무사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공민왕 17년 상황을 보면 송종경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음이 확인됨으로 무사들이 송종경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송종경 휘하 무사들이 통제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아지발도를 총지휘관으로 추대하고 대규모 침입을 감행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모순으로 보이지만 송종경이 휘하 무사들의 왜구 활동을 용인하고 있었다면 가능한 일이다.

당시 송종경은 남조군에 협력하면서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했으며 주로

118) 『고려사』 권126, 열전 39, 변안열 전: 初阿只拔都 在其島 欲不來 衆賊服其勇貌 固請而來 諸賊酋 每進見 必趨跪 軍中號令悉主之.

자신의 영지와 휘하 무사들로부터 동원하였다. 하지만 대마도와 일기도의 생산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송종경 자신 뿐 아니라 휘하 무사들까지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규슈 무사들은 언제든지 다른 세력에 협력할 수 있을 정도로 유동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¹¹⁹⁾ 만약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언제 원료준으로 진항하여 송종경에게 칼을 들이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송종경은 무사들의 왜구 활동을 용인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오히려 전쟁에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를 부추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휘하 무사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군비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왜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귀국을 침범하는 좀 도적들은 우리나라에서 도망쳐 간 무리로서 우리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니 금지하기가 용이하지 않다.¹²⁰⁾

따라서 위 사료에서 이야기하는 ‘도망쳐 간 무리’는 (나)에서 이야기하는 ‘반란을 일으킨 백성’과 동일한 존재이며 대마도와 일기도를 점령했다는 점에서 대마도 송종경 이외에는 생각할 수 없다.

또한 대규모 침입과 중무장이 가능하고 뛰어난 전투수행능력을 보유했다는 점, 고려와 대마도 관계 개선되고 대마도를 정벌했을 때 왜구 침입이 크게 감소했다는 정황, 사료에서 대마도와 일기도를 왜구 근거지로 일관되게 지목한다는 점 등 모든 근거에 부합하는 것은 송종경과 휘하 무사들뿐이다. 그러므로 대마도 만호 송종경을 직간접적으로 왜구에 개입하고 부추겨 그 결과물을 취했던 왜구의 주체이자 배후임에 틀림없다.

119) 김보한, 「日本史에서 본 倭寇의 발생과 소멸 과정」, 231쪽.

120) 『고려사』 133, 우왕 3년 8월: 草竊之賊 是逋逃輩 不遵我令 未易禁焉.

V. 맺음말

고려후기 왜구의 발생과 실체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의 선행 연구자들은 많은 이견을 보인다. 한국이 왜구 발생 원인을 일본에서 찾고 그 실체를 일본인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본다면 일본에서는 고려와 고려인에게서 원인과 실체를 찾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왜구 발생과 실체를 검토해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 타나카 다케오, 다카하시 기마아키 등은 왜구 발생 원인을 고려에서 찾으려 했는데 그것은 왜구가 고려인이 다수 참여했다거나 주체였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근거도 빈약하다. 일본에서 정세 변화가 발생하는 시점에 왜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그 원인이 일본에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왜구 침입 변화는 고려의 내부 사정보다는 일본 정세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더구나 고려의 왜구에 대한 대응책은 일본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일본은 반발하기보다는 성의 있는 자세로 협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왜구가 일본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그런 점에서 타나카 다케오, 다카하시 기마아키가 내세운 근거인 가왜 활동, 이순몽의 상서, 제주도인 왜구설은 근거가 빈약하고 사료를 주장에 끼워 맞추는 것이라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 가왜 활동은 왜구와 연결시킬 아무런 단서가 없음에도 사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주장에 끼워 맞췄다. 이순몽의 상서는 호패법 제시행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사실을 왜곡한 것에 불과하지만 자신들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 또한 제주도인 왜구설은 억지스레 제시한 사료 외에 제주도와 왜구를 연결시킬 아무런 단서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타나카 다케오와 다카하시 기마아키가 내세우는 근거들은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는 너무 빈약하다.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주장에 사료를 맞춰가고 있다고 봐야한다.

(3) 그들의 주장과 달리 왜구 실체 주목되는 것은 일본 남조군 내지 남조군에 협력하던 대마도, 일기도의 영주세력이다. 왜구는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고 중무장을 할 수 있는 존재였으며 고려군을 상대로 승리할 정도로 전투수행능력이 뛰어났다. 따라서 왜구는 일정한 세력을 지닌 집단으로 생활고에 시달린 변민·완

민과 다른 존재이다. 다음으로 고려는 우왕 중기 이후부터 왜구를 무로마치막부와 원료준에 반대하며 대마도와 일기도를 점령한 존재로 인식하였다. 이로 볼 때 왜구는 규슈의 남조군 내지 그들에 협력하던 대마도, 일기도의 영주세력으로 봐야 한다.

(4) 따라서 대마도만호 승종경을 왜구의 실체 내지 배후로 지목할 수 있다. 승종경은 규슈의 남조군에 협력하면서 원료준과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마도의 부족한 생산력으로 전쟁에 소요되는 많은 자원 많은 부담이 되었고 승종경을 따라 참전하면서도 군비를 스스로 마련해야 했던 무사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만약 이들의 생존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원료준에 협력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었다. 때문에 승종경은 대마도와 일기도의 무사들이 왜구 활동을 벌이는 것을 용인하였을 뿐 아니라 전쟁에 필요한 군비 확보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음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왜구는 대마도와 일기도의 영주·무사 계층이며 그 배후는 대마도만호 승종경이었다.

(5) 이상의 모든 사실을 종합하면 왜구 발생 원인은 근본적으로 일본에 있고 고려의 내부 사정은 부수적이고 일시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이다. 그러므로 왜구는 일본인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전쟁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려는 대마도만호 승종경과 그 휘하 무사들에 의해 주도되었음에 틀림없으며 그 가운데는 일부 생존을 위해 해적활동을 벌인 변민, 완민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왜구는 고려인과 무관한 일본인으로 구성된 집단이었다.

참 고 문 헌

○ 사료와 사료집

『고려사』

『고려사절요』

『세종실록』

『성종실록』

김덕원, 『韓國中世 日本史料集成』, 경인문화사, 2006.

임원빈 외, 『고려시대 수군관련 사료집』, 신서원, 2004.

○ 연구서

강봉룡, 『한국 해상세력 형성과 변천』,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4.

강진철, 『改訂 高麗土地制度史研究』, 일조각, 1991.

_____, 『韓國中世 土地所有研究』, 일조각, 1989.

국방군사연구소, 『倭寇討伐史』, 국방군사연구소, 199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9, 11, 15, 19, 20, 22, 국사편찬위원회, 200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2, 국사편찬위원회, 1993.

김재근, 『續韓國船舶史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김창현, 『고려의 남경, 한양』, 신서원, 2006.

김호동, 『몽골제국과 고려』,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박경안, 『高麗後期 土地制度研究』, 해안, 1996.

박종기 외, 『14세기 고려의 정치와 사회』, 민음사, 1994.

심재석, 『高麗國王 冊封 研究』, 해안, 2002.

윤명철, 『장보고 시대의 해양활동과 동아시아중해』, 학연문화사, 2002.

_____, 『한국해양사』, 학연문화사, 2003.

_____, 『한민족의 해양활동과 동아시아중해』, 학연문화사, 2002.

윤성익, 『명대 왜구의 연구』, 경인문화사, 2007.

이문기 외, 『한·중·일 해양인식과 해금』, 동북아역사재단, 2007.

이영, 『잊혀진 전쟁 왜구 : 그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에피스테메, 2007.

이정희, 『고려시대 세제의 연구』, 국학자료원, 2000.

일조각, 『한국사 시민강좌』 35, 일조각, 2004.

정진술 외, 『다시보는 한국해양사』, 신서원, 2008.

진영일, 『고대 중세 제주 역사 탐색』,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 『중세 왜인의 세계』, 소화, 1998.

최근식, 『신라해양사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5.

최혜숙, 『高麗時代 南京研究』, 경인문화사, 2004.

홍영의, 『高麗末 政治史 研究』, 해안, 2005.

○ 연구논문

권영국, 「고려말 中央軍制의 변화」, 『사학연구』48, 한국사학회, 1994.

_____, 「고려말 지방군제의 변화」, 『한국중세사연구』1, 한국중세사학회, 1994.

김경록, 「공민왕대 국제정세와 대외관계의 전개 양상」, 『역사와 현실』 64, 한국역사연구회, 2007.

김기섭, 「14세기 倭寇의 동향과 고려의 대응」, 『한국민족문화』 9,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7.

김당택, 「고려말의 사전개혁」, 『한국사연구』 104, 한국사연구회, 1999.

김보한, 「東아시아의 經濟 圈域에 있어서 약탈의 주역, 海賊과 倭寇 -10~13세기 日本의 海賊과 倭寇를 중심으로-」, 『中國史研究』 29, 중국사학회, 2004.

_____, 「東아시아 海域의 아웃로(Outlaw) -13·14세기 倭寇 활동과 그 원인-」, 『日本歷史研究』 24, 일본사학회, 2006.

_____, 「少貳冬資와 倭寇의 일고찰」, 『日本歷史研究』 13, 일본사학회, 2001.

_____, 「一揆와 倭寇 -「下松浦 一揆」의 성립과 관련해서-」, 『日本歷史研究』 10, 일본사학회, 1999.

_____, 「日本史에서 본 倭寇의 발생과 소멸 과정」, 『文化史學』 22, 한국문화사학회, 2004.

_____, 「中世 日本의 麗·蒙 위기론」, 『文化史學』 23, 한국문화사학회, 2005.

_____, 「海洋文化和 倭寇의 소멸」, 『文化史學』 16, 한국문화사학회, 2001.

남기학, 「중세 고려·일본 관계의 쟁점」, 『日本歷史研究』 17, 일본사학회, 2003.

도현철, 「고려말 사대부의 일본 인식과 문화 교류」, 『韓國思想史學』 32, 한국사상사학회, 2009.

박종기, 「고려 말 왜구와 지방사회」, 『한국중세사연구』 24, 한국중세사학회, 2008.

박한남, 「恭愍王代 倭寇侵入과 禹玄寶의 ‘上恭愍王疏」」, 『軍史』 34, 국방군사연구회, 1997.

손홍렬, 「高麗漕運考」, 『사총』 21, 역사연구회, 1977.

윤경진, 「고려말 조선초 僑郡의 설치와 재편」, 『한국문화』 40,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7.

_____, 「고려 말 조선 초 서해·남해안 僑郡 사례의 분석」, 『韓國史學報』 31, 고려사학회, 2008.

윤성익, 「元代 倭寇에 대한 考察」, 『東洋學研究』 5, 동양학연구회, 1999.

- 윤훈표, 「고려말 국방재원 조달체계의 개편」, 『역사와실학 실학사상연구』 13, 역사실학회, 1999.
- 이미지, 「高麗 宣宗代 榷場 문제와 對遼 관계」, 『한국사학보』 14, 고려사학회, 2003.
- 이상훈, 「고려말 사진의 집적과 그 변화」, 『역사와사회』 2, 국제문화학회, 1995.
- 이 영, 「<경인년 이후의 왜구>와 마쓰라토(松浦党)」, 『일본역사연구』 24, 일본사학회, 2006.
- _____, 「高麗末期 倭寇構成員에 관한 考察」, 『韓日關係史研究』 5, 한일관계사학회, 1996.
- _____, 「고려 말 왜구의 허상과 실상」, 『大丘史學』 91, 대구사학회, 2008.
- _____, 「고려 말의 왜구와 마산」, 『한국중세사연구』 17, 한국중세사학회, 2004.
- _____, 「고려의 대일(對日) 인식」, 『일본문화학보』 12, 동아시아일본학회, 2002.
- _____, 「‘倭寇의 空白期’에 관한 한 考察」, 『日本歷史研究』 5, 일본사학회, 1997.
- _____, 「일본인이 보는 왜구의 정체」, 『韓國史研究』 123, 한국사연구회, 2003.
- _____, 「전환기의 동아시아 사회와 왜구」, 『역사비평』 46, 역사비평사, 1999.
- 이익주, 「고려말 신흥유신의 성장과 조선 건국」, 『역사와현실』 29, 한국역사연구회, 1998.
- 이재범, 「고려 후기 倭寇의 성격에 대하여」, 『史林』 19, 수선사학회, 2003.
- 장득진, 「高麗末 倭寇侵掠期 ‘民’의 동향」, 『國史館論叢』 71, 국사편찬위원회, 1996.
- 진석우, 「고려말 무장세력의 군사적 배경」, 『인문사회과학연구』 8,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1.
- 차용걸, 「高麗末 倭寇防守策으로서의 鎭戍와 築城」, 『史學研究』 38, 한국사학회, 1984.
-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 「중세 왜인의 세계」,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5.
- 최소자, 「元末 倭寇와 元·日關係」, 『梨大史苑』 26,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1992.